

할렐루야,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능력과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 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교회 가운데 예수로 충만함을 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돌아오시는 그 날까지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반석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 된 교회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라
에베소서 1:20-23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7회 총회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7회 총회가 23일~26일까지 라도아 프라자 호텔과 퀸즈장로교회에서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주제아래 총대 목사(전 총회장)와 장로, 사모 등 4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23일 오후 7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총회장 홍규표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양경선 목사(남가주노회장) 기도, 문덕연 목사(뉴욕동노회장) 성경봉독, 김성국 목사(부총회장) 설교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는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에베소서 1:20-2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팬데믹 이후 기도가 가뭄과 범람으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 가뭄과 범람을 동시에 이길 수 있는 길은 깨끗한 물로 충만하면 된다. 갈라진 땅에 깨끗한 물이 가득히 고이고 범람하지 않아 무엇인가 해를 주지 않는 충만이 되면 해결된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영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모습이 삶이, 가슴이 찢어지는 가뭄과 갈고 이상한 것들이 휩쓸고 가며 죽음으로 몰고 가는 범람이 가득한 세상이다. 이 영적인 가뭄과 범람에서 살길은 충만이

다. 예수님으로 충만 하는 것이 살길이다. 은혜가 충만하면 영적인 갈증도 해결된다. 교회가 다시 한 번 진리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갈 때 가뭄과 범람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다"며 "이 총회를 통해 두 손을 들고 애도하며 나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다시 세워갈 것이다. 우리 교회가, 총회가 예수로 충만해야 한다. 진리로 충만해야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 찬양은 퀸즈장로교회 연합찬양대와 뉴욕센터별 교회 장로 중창단의 찬양 후 천성덕 목사(전 총회장)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성찬예식, 그 자체가 메시지"

이어 이용걸 목사(전 총회장)의 집례로 성찬예식이 진행됐다. 퀸즈장로교회 글로리아싱어즈의 특별찬양과 김대섭 목사(남부노회장)의 기도, 민봉기 목사(북가주노회장)의 성경봉독과 이용걸 목사(전 총회장)의 설교에 이어 분별과 분잔의 시간을 가졌다. 성찬예식에서 말씀을 전한 이용걸 목사는 '그의 죽으심을 본 받아'(빌립보서 3:10-11)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성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나는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결심과 각오가 하루도 못 넘기고 예수를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했다. 죽은 죽음이란 것을 가지고 많은 주의 종들을 시험하고 넘어지게 한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라고 한다. 부활 신앙, 죄와 사망에서 이기고 부활하신 임마누엘 신앙이 아니고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성찬예식은 성찬예식 자체가 메시지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 나도 죽음을 준비하며, '주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자."고 말씀을 전한 뒤 총대 장로들의 분별과 분잔으로 성찬예식을 가졌다. 이날 성찬 예식은 김재열 목사(전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으며 제 47회 회무처리로 이어졌다.

총회장 김성국 목사, 부총회장 권혁천 목사

제47회 총회 첫 회무 처리가 성찬 예식 후 퀸즈장로교회 분당에서 시작됐다. 회원 호명 후 총회장이 개회를 선언했으며 총회준비위원장 이윤석 목사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어 절차 보고를 통해 47회 총회의 주제인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엡 1:23)"를 공포했으며 고시부 보고가 이어졌다. (10면으로 계속)



아이들을 키우면서 받는 은혜와 감사로 산다!

CT, 5명 자녀 둔 젠폴락미셀이 말해주는 육아의 가치와 은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너희 둘은 실수로 태어났다는 거지?" 나의 쌍둥이 아들들이 농담을 건네는 그들의 고등학교 선생님을 이상하게 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형들이 태어난 지 몇 년 뒤에 부모님이 계획하지 않았지만 태어난 아이라고 설명했다. "너희 부모님께서 실수가 아니라 기쁜 놀라운 소식이었다고 이야기해주시지 않았나?"

16년 전 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즈음 나는 대학원으로 돌아갈 계획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아기 침대와 카시트, 아기용품들 모두 처분했다. 하지만 계획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고, 나는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쌍둥이를 임신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을 받아들이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다. 다섯 명의 아이들을 육아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특히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난리법석을 떨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날들이 짧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를 "놀라게" 했던 존재들은 사춘기를 지나며 몸에 털이 나고, 교정을 했고, 난생 처음으로 고등학교 댄스파티에도 참석했다.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남은 시간을 세어보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와 내 마음이 무거워진다.

지난 22년 동안, 엄마가 되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 큰 일이었다. 한계의 연속이었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지속되었지만, 또한 선물이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가능한 한 육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Evangelicals Are Delaying Having Children, Are We Missing Out? Motherhood has been a boon to my work, not a drain..).

(3면으로 계속)



3면 시론 민경엽 목사



4면 푸른초장 정기태 목사



16면 인터뷰 김성국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LA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약)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2023년 한미장로교 장학재단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2023

장학생선발공고

목적 | PURPOSE

한미장로교 장학재단의 목적에 준하며, 재미한인 교회와 재미한인 공동체를 위해 광범위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열성으로 봉사하려는 인재 발굴과 양성.
The objective of the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is to discover and to cultivate the future leaderships of the Korean-American churches & community.

신청자격 | ELIGIBILITY

미주지역에 있는 한미장로교회에 소속한 학생으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구비하신분 (본 장학금을 이미 받으신 분은 제외됨).

The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tudents who meet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 기독교 신앙이 투철하고 신앙생활이 독실하며 교회와 사회에 모범이 되는 분으로 교회와 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려는 학생에 한함.
Who upholds the sound faith in Jesus Christ practices the sincere Christian life sets an example in their local churches and community commits to serve church and community with a strong conviction of calling.
- 현재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에 한함.
Who has been enrolled in an accredited college, university or graduate school (Master's level) in the current academic year.
- 신학계통의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은 미국장로교(PCUSA) 산하 신학교에서 M. Div.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에 한함.
For theological students and the M-Div. course at the PCUSA theological seminary.
-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한 학생에 한함.
Who is a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제출서류 | APPLICATION

특별한 신청 양식은 없으나 다음 1~5번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Application: No official form, but the following documents must be accompanied:

- 명함판 사진이 첨부된 본인 이력서 (연락 가능한 주소와 전화번호 필수)
A resume with a photo attached (current address and phone number included).
- 신앙고백적 사명감과 장래 비전에 관한 진술서 (한글 또는 영문 2페이지)
A personal statement of faith, conviction of calling, vocational vision (Either Korean or English in 2 pages).
- 본인 또는 부모님의 2022년 연방 소득세 1040, 1040A, 또는 1040 EZ사본
Applicant's or parent's copy of 2022 Federal Income Tax 1040, 1040A or 1040EZ.
- 추천서 2통
(1) 소속 또는 출석하는 장로교회 담임목사님 추천서
A Presbyterian pastor's letter of recommendation with which one has been affiliated.
(2) 현재 재학중인 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수 추천서 1통
A recommendation from an official academic institution professor.
- 본인 재학중인 학업 성적표
Official transcripts of current academic year mailed directly from the institution to the office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 위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본회 사무실에 직접 우송해야 합니다.

신청마감 | DEADLINE

신청서 접수 및 우편 소인 마감: 2023년 7월 25일 (접수서류 반환치 않음)
July 25th, 2023 Date of stamp (All submitted documents not be returned).

장학금 내역 | A LIST OF SCHOLARSHIP

1	김득철 목사, 김복신 권사 기념 장학생 1명 The Rev. Tukyul Kim & The Kwonsa Bockshin Kim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2,000.00
2	김득철 목사 가족 특별 장학생 1명 The Rev. Tukyul Kim's Family Spec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2,000.00
3	주형욱 목사, 손철수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The Rev. Hyungok Joo, The Elder Chulsoo Son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2,000.00
4	주요남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The Elder Yo-nam Joo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2,000.00
5	이민근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The Elder Minkeun Lee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00
6	왕수복 장로 장학생 1명 The Elder Soobok Wang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00
7	홍길두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The Elder Gildoo Hong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00
8	김광열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The Elder Kwang Yeal Kim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00
9	신봉성 권사 기념 장학생 1명 The Kwonsa Bongssang Shin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00
10	이범열 집사 기념 장학생 1명 The Deacon Bumyeul Yi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00
11	New Life 랜싱 한인 장로교회 장학생 1명 New Life Lansing K.P.C.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00
12	여명자 목사 장학생 1명 The Rev. Myungja Yue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00

신청서 접수 | MAILING ADDRESS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1142 Canterbury Cir. Canton, MI 48187
E-mail: kapsf2020@gmail.com, 문의: 734-693-1888

장학금 수여 | THE DATE OF SCHOLARSHIP AWARD

2023년 8월 31일 -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직접 발송함.
(장학금 수령자는 장학금 기증자에게 반드시 감사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August 31st, 2023 by mail (Please return your feedback letter with a thanksgiving expression)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회장: 김중대 장로 | 총무: 안덕치 목사 *본 장학회에 관한 기타 정보는 크리스천저널 웹사이트 kcjlogos.org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발행인 칼럼

어디로 달려갈까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맨해튼에 'Vessel'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축물이 있다. 이름 그대로 모양이 배와도 같다.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에 오르며 맨해튼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될 줄 알았는데 뜻밖의 암초(暗礁)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구조물로 올라갈 수 없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그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종종 벌어졌기 때문이다. 필자는 출입금지(出入禁止) 전에 올라가 본 적이 있었다. 올라갈수록 허드슨 강을 비롯하여 멋진 건물, 아름다운 풍경이 더 잘 보였다. 그런데 이미 몇 차례 있었던 자살 이야기를 들었던터라 그 관점으로 보니 자살 충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었다. 일단 난간이 높지 않아 뛰어내리기에 용이했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한 번에 던져버릴 친근한(?) 장소로 착각할 수 있을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이다. 멈춰야 한다. 그런 어이없는 달음박질을 얼마나 고귀한 인생인데 그렇게 쉽게 던지다니,

어렸을 적에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기면 아버지께 달려갔다. 좋은 일을 말씀드리면 나보다 열배 이상 기뻐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떠오른다. 그 어떤 나쁜 일도 아버지께 가지고 가면 아버지는 내 이야기를 들으시기도 전에 다 아시는 듯이 위로의 눈빛으로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시곤 했다. 나는 아버지 앞에서 모든 어려움을 툭툭 털어버리고 힘을 내어 다시 그 다음 길을 갈 수 있었다. 두 아들이 있다. 힘들 때마다 아버지인 나를 향해 달려오던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어떤 상황이든 아버지인 나를 찾는 아들이 되면 좋겠다. 아니, 언제나 달려오는 아들들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가 먼저 되어야겠다.

이 칼럼을 쓰는 도중에 전화 한통을 받았다. 어느 교우의 전화였다. 아버님이 병원에서 호스피스로 옮겨 가시기 직전인데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었다. 그 병원이 멀리 있는터라 가족들이 함께 모여있고 아버님도 옆에 계시다며 스피커폰을 열어 놓으시겠다고 하였다. 그 가정은 아주 멀리서 교회에 나오신다. 주일만? 아니다. 수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 등 교회 모든 공예배에는 다 나오시고 봉사의 자리에 남편도 아내도 열심히 나오신다. 늘 교회를 향해 달리는 가족이지만 가장 어려운 시간에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었다. 힘써 달려갈 곳이 어딘지를 아는 가정은 환경을 초월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다.

지금은 문제를 가지고 육신의 아버님에게 달려갈 수 없다.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나 달려가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 그 분은 견고한 망대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 18:10) 어려운 일, 낙심되는 일을 만났을 때 그 분에게 달려가면 된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도 그 분에게 달려가 그 분과 함께 놓고 견고한 망대에서 문제들을 바라보면 나를 그토록 괴롭히고 심각하게 만들었던 문제들이 다 낮게 보인다. 인생길에 힘들다고, 이런 저런 이유로 넘어졌다고 그 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 기껏 달리는 길이 그릇된 길이어서도 안 된다. 우리에게는 달려가 영원히 안길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맡기신 자녀위해 영적 성장에 부합하는 교육 찾는다!

CT, 중국 공립학교들이 기독교 가정 몰락시키고 있는 상황 크리스천 부모의 대안 소개

10대 초반에 황 지안(Huang Jian)은 마음을 닫기 시작했다. (이 글에 등장하는 황 지안과 다른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한때 행복했던 이 중국인 중학생은 점차 침묵하기 시작했다. 지안의 아버지 황 유저우(Huang Yuzhou)는 지안의 행동 변화를 학교의 '트라우마', 즉 학습과 참여 의지를 꺾는 고압적인 환경 탓으로 돌렸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가족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현재 중국에서는 불법이지만 아들을 홈스쿨링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 북부의 가정교회 목사인 황 목사는 "많은 기독교인이 믿음으로 자녀에게 기독교 교육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자신의 신앙을 반대하는 사회에서 자녀가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양육하기를 원하는 중국 기독교인 부모들은 청사진 없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기독교적으로 교육하고 영적으로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 공립학교 교육과정에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며, 종교적 믿음을 어리석은 미신에 비유하기 때문이다. 많은 1세대 중국 기독교인들은 특히 종교적 제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황 목사의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막내아들을 홈스쿨링 하고 있다. 황 목사는 현재 자신의 종교 활동과 관련된 혐의로 수감되어 있다. 그와 그의 가족은 기독교 교육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후 홈스쿨링이 아들의 정신 건강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바라며 홈스쿨링을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진 아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황 목사는 말했다. "홈스쿨링으로 들어서고 나서야 우리는 아이의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루 진시옹(Lu Jinxiong)은 학교에서의 억압적인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던 10대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 "기독교인 부모로서 자녀

다. "그들은 자녀가 신앙을 잃는 것을 방지하고, 영적 성장에 부합하는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중국 가정 교회를 섬기고, 훈련시키며,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는 차이나 파트너십(China Partnership)의 블로그 편집자인 그레고리(E. F. Gregory)는, '크리스처니티 투데이(CT)'를 통해서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녀를 위한 크리스천 부모들의 영적 전투를 소개한다 (China's Public Schools Are Failing Christian Families: Whether it's atheism in the classroom or high-pressure academic environments, parents struggle to find a space that best serves their children).



교육에 대한 부담이 큼니다."라고 상하이의 한 전문가가 말했다. "[정부는] 아이들이 공립학교에 가도록 강요하고 홈스쿨링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많은 형태자매에게 매우 큰 도전입니다."

루와 그의 아내는 행정적, 재정적 기적을 통해 딸을 해외로 보낼 수 있었다. 그들은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주 안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고민하는 다른 부모들에게 자신들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가정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중국 부모들이 이러한 이슈에 직면했을 때 지혜를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중국 가정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교육 선택권은 국공립 학교 한 곳뿐이다. (국제 학교와 사립학교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이용할 수 없거나 제한이 심하다.) 많은 기독교인 부모들은 신앙생활을 경시하는 열렬한 무신론적 시스템에 자녀를 맡기는 것에 마음 아파한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전도를 금지해 왔으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종교 교육도 불법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관료들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을 주시해 왔다. 일부 신자들은 주일학교 수업을 통한 신앙 교육을 위해 교회에 의존해 왔다. 황 목사를 포함한 다른 이들은 교회가 가족들의 영성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걱정했다. 밀레니엄이 시작될 무렵부터 중국 전역에서 점점 더 많은 기독교인이 자녀에게 기독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교회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다른 가정에서는 집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을 선택했다. 지난 몇 년 동안 교회학교에 대한 운신의 폭이 좁아졌지만, 두 가지 방안 모두 가정 교회 신자들에게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 중국의 홈스쿨링에 대한 공식적인 수치를 찾기는 어렵지만, 2013년에 약 18,000명(중국 학령기 아동 2억명 중 일부)이 홈스쿨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정 교회에 속한 중국 기독교 가정에서 홈스쿨링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홈스쿨링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6면으로 계속)

자녀 교육을 위한 분투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전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한인 커뮤니티를 위하여 여러 정신건강 전문가와 기관들이 함께 준비한 한인 정신건강 워크샵
1차 세미나
일시: 5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장소: American West University
워크샵 참석 혜택
1) 한국어와 영어로 된 정신건강 정보 안내서 무료 증정
2) 세미나 후 10명의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정신건강 네비게이터들이 상담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영어로 서비스 신청 대신 해 줌.
3) 간단한 간식과 음료 제공
Korean Navigation Mental Health Project
컨설턴트 (Consultant): 김효철 (Hyocheol Kim)
213.820.8855 | khckjo@gmail.com

담임목사 청빙 광고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살렘 벨렐 교회에서 함께할 담임 목사를 찾습니다
살렘 벨렐 교회는 ARP 교단 제일 노회 소속이며 노스 캐롤라이나 살렘에 위치 하고 있고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서는 지난 27년동안 우리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시고 은퇴를 하시기에 되었기에 열정적이고 전문적인 차기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성경적인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가진 자
한국어와 영어 모두 능통한 자
영주권자 나 시민권자 로써 이민법상 신분에 문제가 없는 자
ARP 교단에서 인정 한 학교의 M Div. degree 이상 소유자
ARP 교단 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인준 기준에 결격 사유 없는 자
이민교회 목회 사역 3년 경력 이상 (전도사 포함 5년 이상)
미국과 한국에서 신학 공부 한 자
제출 서류:
이력서 (사진과 가족사항 포함)
자기소개서 (사역 경험과 목회 비전 포함)
목사 안수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설교영상
원서 접수 마감일: 2023년 7월 31일
관심있는 분은 서류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들이 있다면 함께 첨부해 주세요. 제출된 서류는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의껏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빙위원회 위원장 이민혁 장로 email: bethelkc7121@outlook.com Cell: 704-724-2465
살렘벨렐교회 청빙위원회
7121 Delta Lake Dr, Charlotte, NC 28215 | (704) 566-7173

아이들을 키우면서 받는...

(1면에서 계속)

올 봄에 발표 된 웰스트리트 저널의 노르크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가 놀랄만큼 급격히 하락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미국인들은 이전에 비해 애국심, 자녀, 종교, 지역사회 참여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여론조사관 패트릭 튀피니는 2019년 수치에서 응답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편향"을 의식하여 결과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응답자들의 대답은 실제 그들이 갖고 있는 인식과는 다르게 나타났을 수도 있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는 미국의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로 인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과 오하이오 주립 대학의 연구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연구를 통해 20-24세 사이의 미국인들이 역사적으로 그래왔듯이 동일하게 아이를 갖기 원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을 최대한 미루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아동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부모가 되는 것을 미루는 데에는 다양한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이다. 체펠힐의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사회학과 교수인 카렌 벤자민 구초 캐롤라이나인구센터 소장은 "미국 정부가 육아에 관해 지원하는 부분이 적은 반면, 젊은이들은 학자금 대출과 높은 주거비, 고용불안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을 미루거나 심지어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안은 오늘날 현실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생태계 위기에 대해 걱정하고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힘든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명확하지 않지만, 최근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아이를 더 적게 낳고 더 늦게 낳는 문화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나는 아기의 기저귀와 이유식과 씨름해야만 좋은 삶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결혼한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 아이가 없는 사람, 아이가 많은 사람 모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젊은 기혼 여성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가족을 꾸리는 것은 여전히 복된 것이라는 것이다.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쁨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3).

교회 문화 안에서 자리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것은 내게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비록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 여성이 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소명은 결혼과 모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들었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교회의 한 성도의 강력한 후원과 추천을 받아 빌 고타드의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다. 고타드가 언급한 여러 성경적 원칙들 중에서 엄마들이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을 기억한다.

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견해에 관해 의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여전히, 젊은 엄마로서, 나는 내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내 모든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고 이로 인해 자주 감명받기도 한다. 나는 일 년간 교회의 부모수업에 참석했는데, 강연자인 여성분은 남편이 자신이 의대에 진학하는 것을 남편이 막았다고 말했다. 일하는 여성에 관한 주제가 나왔을 때, 강연자는 엄마와 일하는 여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다: 냉장고에 우유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있는가?

이제 나는 모성에 관한 이러한 메시지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틀린 대답이다.

모성애가 내 인생의 유일한 척도였던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고, 여성의 커리어가 단절될 것이므로 환경적으로

삶을 건강한 나무로 묘사한다. "무엇을 생산하든 번성한다." 유대인의 성경 해설을 보면 "성숙한 노년까지 살아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성공적인 삶에 대한 성경적 사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성숙한 노년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모성에 대한 나의 고민은 점차 작아졌다. 우리 아이들이 훨씬 어렸을 때는 나만 혼자 애쓰고 있고 스스로 엄마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 나는 이것은 함께 해야 하는 고민이라는 것을 안다. 내 남편과 함께 나는 지금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시작하도록 도왔다.

내가 기도하고 계획했던 대로 훌륭한 엄마가 되지는 못했다. 어떤 엄마도 그렇지 못할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속 나아가며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형편없는 삶이 구원의 역사로 다시 쓰여진다.

제임스 K.A. 스미스의 저서 How to Inhabit Time(시간을 사는 법)에서 "은혜는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돌이킬 수 없으며 지워지지 않는다. 후회가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스미스는 역사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준비되지 않았다면 육아를 택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인식하는 문화 속에서도 육아를 했던 부분은 내 삶에서 진정 좋았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젊은 여성들에게 감히 말하고 싶다: 만약 가능하다면, 시도해보아라. 그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 내 삶 속에서 마주해야 했던 여러 제약을 넘어서기 위해 나는 엄청나게 고군분투했다고 고백한다. 사람들은 작가로서 성공하려면 아이를 너무 많이 낳지 말고 계획적으로 대처하라는 말도 했다.

하지만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그 소란스러운 날들을 나는 소중히 여겼을 것이다. 아이들 덕분에 나는 글을 쓸 수 있었다. 경이로운 세계로 나를 이끌어 준 것은 아이들이었고, 내가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준 것도 바로 그들이었다. 엄마로서, 나는 삶에서 한 부분을 잃었지만, 그 대신 다른 삶을 얻었다.

최근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20-30대 때는 좋은 삶에 관해 제대로 경험해본 바가 없어 반감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편은 번성하는 인간의

영원한 사역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엄마로서의 나는 수많은 실수를 했다. 온전한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록 지혜가 부족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나는 점차 엄마가 되어가며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는 기쁨으로 인해 감사함을 얻었다는 것이다.

위 책에서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연한 사건 - 고통과 슬픔, 약함과 불의까지 사용하시며, 그것을 나의 삶, 즉 나의 유일한 삶에 이르게 하신다." 은혜는 놀라운 일을 뜻밖의 경험으로, 실수를 선물로 바꾼다. 그것이 나를 만들었고, 내 아이들을 성장하게 만들었다.

나의 자아는 단순히 엄마가 아니지만 아직은 그 이상도 아니다.

(젠 폴락 미셸(Jen Pollock Michel)은 'In Good Time: 8 Habits for Reimagining Productivity, Resisting Hurry, and Practicing Peace'(Baker Books, 2022) 등 5권의 책을 집필한 작가이자 팟캐스트 진행자이며 강연자이다)

시론

그날의 부흥을 다시 한 번!



민경엽 목사 (나침반교회)

캐나다 리젯트 칼리지의 제임스 패커 교수는 그의 명저 <성령을 아는 지식>에서 부흥이란 단순히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일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교회를 소생시키는 것이 부흥이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역을 통해 성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부흥이고, 자신의 온갖 죄악을 토로하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고, 동시에 교회가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는 구심점으로 거듭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갈파하였다. 얼마나 정확하고 가슴에 불을 지르는 정의인가! 그런 의미에서 부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부흥이 없다면 교회는 그 순간부터 무능력해지고 썩기 시작하여 병들다가 고사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부흥으로 먼저 우리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갈망해야 한다.

지난 2월 8일 캔터키 주의 애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으로 인해 흥분하고 있을 무렵, LA성시화운동본부에서 목회자들에게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부흥성지를 순례하자는 제안에 열의를 제치고 참석하였다. 우선 JAMA의 원로대표이신 강순영 목사의 강의를 통해 나를 포함해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가 살고있는 지역이 20세기에 세계를 뒤흔들었던 중요한 부흥운동의 진원지라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막연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나는 그때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꼭 와야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마침내 소원을 이루었다. 더군다나 일정이 맞아 한국의 합신교단 총회장 일행도 동참하게 되어 더욱 기뻐했다.

1906년 아주사 부흥운동의 주인공 윌리엄 시모어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도 못하였고 어렸을 때 한쪽 눈이 실명한 노예 출신 흑인 목사였는데 그가 보니 브래아 길의 작은 집에서 적은 인원이 모여 기도하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방언이 임하고 기적이 나타났다. 수많은 병자가 치료받았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집의 축대가 무너지는가 하면 일대의 교통이 마비되기까지 하였다. 나중에 아주사 스트리트로 옮겨서도 부흥은 계속 이어졌다. 3년 반 기간 동안 매주 6-8회의 기적이 일어났다. 예배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실제로 임하여 소방차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도 하였다. 아주사 부흥운동은 오순절 성령운동의 시발점이 되었고, 하나님은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자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선례를 남겼다. 1949년 빌리 그레함은 현재 LA대법원이 있는 자리에서 3주간 예정으로 천막집회를 개최하였는데 폭발적인 은혜로 8주간으로 연장하였고, 연인원 35만 명이 모이는 기쁨을 토했다. 이 집회가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의 시발점이 되어 서울 여의도 광장집회를 포함하여 세계 주요도시에서 평생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미국 대표 부흥사의 길을 걸었다. 이외에도 국제 CCC를 창설한 빌 브라이트 박사, 주일학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헌신하였고, 빌리 그레함과 빌 브라이트를 포함한 수많은 기독교 리더들을 만들어낸 헨리에타 미어즈 여사,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반문화운동을 일으킨 히피를 전도하여 대형교회의 목회자들로 성장시킨 지저스 피플 무브먼트를 일으킨 갈보리 체펠의 책 스미스 목사 등등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각 부흥의 현장에 가보니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었다는 동관들이 그날의 역사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목회자들이 그날의 부흥을 사모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 역시 우리가 부흥의 진원지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헨리에타 미어즈 여사가 섬겼던 할리우드장로교회와 연예인들의 손자국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스트리트에서는 버스 안에서 회복과 부흥을 다시 주시기를 부르짖었다. 지금 한국도 미국도 다시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오셔야 한다. 오셔서 먼저 온갖 죄악을 토설하게 하셔야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보여줄 수 있다.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minkyungyob@gmail.com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 Step 2: 주문하기
- Step 3: 시안확인/수정
- Step 4: 상품수령

문의 환영!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물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 8:3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사람을 변화 시키는 사랑의 힘

제리 화이트는 그의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소개했다. "오래전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한 교수는 한 그룹의 대학원생들을 빈민굴에 보내어, 12세에서 16세의 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력과 환경을 조사하여 그들이 점차 건전한 삶을 살 확률을 예측해 보도록 했다. 사회적인 통계들

을 조사하고 그 소년들과 대화도 나누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많은 자료를 수집한 후, 이 학생들은 그 소년들 중 90%가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25년 후, 또 다른 대학원생들 그룹이 그 빈민굴에 가서 그 예측의 정확성을 알아보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 소년들 (지금

은 어른이 되었지만) 중에는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먼 곳으로 이사한 사람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 200 명의 학생들 중 180 명을 만나 볼 수 있었는데, 그들 중에 단지 4명만이 교도소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범죄의 온상이

서 자라난 이 사람들이 그토록 훌륭한 기록을 낼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조사하러 간 학생들은 그들로부터 수십 차례나 "그 빈민굴에는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라는 말을 들었다. 그들이 조사를 더해본 결과, 그 소년들의 75%가 어떤 부인의 영향을 받았다 것이 밝혀졌다. 조사원들은 은퇴한 교사들을 위한 숙소에 살고 있는 그 부인을 만나서, 그렇게 많은 빈민굴 소년들에게 어떻게 그토록 큰 영향을 끼쳤는지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 부인은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절을 곰곰이 회상해 보더니, 혼잣말로 "난 그 학생들을 사랑했었지..."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글을 보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랑을 받으면 인간은 누구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다. 자기 자신을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 결과 그 사랑을 받은 수많은 사람이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랑 빼고 다 해보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영원한 사랑을 베풀도록 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믿는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

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요한일서 4:7-12)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정기태 목사

(새벽별주님교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그리고 미국에서는 Mother's Day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기리는 날은 고대 그리스의 어머니 숭배에서 유래했습니다. 키벨레 또는 신의 대모 레아를 기리는 의식과 함께 공식적으로는 소아시아 전역에서 3월 15일에 열렸습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영국은 사순절의 두 번째 일요일인 "어머니의 일요일"로 알려진 것을 기념했는데, 이것은 전 세계에서 어머니들을 기리는 데 바쳐졌습니다.

미국에서의 어머니의 날은 1872년 유명한 미국의 평화주의자 줄리아 워드 하우에 의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지지되었습니다. 줄리아 워드가 쓴 "어머니의 날"은 세계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어머니들 사이의 단결의 날입니다. 줄리아 워드의 개념은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는 널리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1907년, 미국인 필라델피아 출신의 안나 자비스는 그녀의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솔선 수범했습니다. 안나는 정부 기관, 입법부, 그리고 저명한 개인들에게 일 년에 하루는 어머니들을 기리는데 헌신할 것을 제안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1910년, 버지니아 주는 처음으로 어머니날을 공식적인 휴일로 인정했습니다. 1914년,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5월의 두 번째 일요일을 모든 미국인 어머니들을 기리는 국경일로 선포했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은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부모님께는 효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전도자로서 승리하는 삶인지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항상 힘쓰는 것입

니다.

본문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은 본 절의 다른 명령들을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전파하라'의 헬

려야 합니다. 전도자의 사명인 복음전파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의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영생의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복합니다.

두 번째, 경계하며 경계하며 권하여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절의 "오래 참음"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속성과 태도로서, 죄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인내함으로 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나타내며, "가르침"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복음 선포 사역에서 병행

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한복음 16:8)

그리고 "경계하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죄인을 경계하는 과정에서 호되게 책망을 뜻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 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린도후서 2:5,6)

전도자의 일을 잘 하기 위

권고합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귀하고 먼저 행하여야 할 직무는 복음전파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본 절(5절)에서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신중하게 하며,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고난에 대한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디모데후서 3:12)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태복음 7:13,1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태복음 16:24,25)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은 5절에서 '고난을 견디다'라는 의미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길에 고난이 뒤따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 잘 견디어야 합니다. 복음전할 때에 중요한 것은 입으로 전하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의 삶이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드리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힘 있게 잘 감당하고, 복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복음전파와 복음(그리스도인)의 삶을 같이 잘 감당하여야 복음의 역사가 주님 안에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음 전도자의 승리의 삶은 첫 번째,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계하며 경계하며 권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저희의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저희에게 주시는 3가지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입으로 전하는 복음이 저희들의 삶으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많은 사람이 주께 더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chungkitae1962@gmail.com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사명

디모데후서 4:2~5



라어의 뜻은 '대중 앞에서 선포하라'는 의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모든 사람에게 담대히 전파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끊임없이 말씀을 전파하여야 합니다. 저희의 시간이 맞추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항상"이라는 단어로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여 힘을 다하는 복음전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힘쓰라"는 헬라어는 "끈질기게 권고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희 전도자의 할 일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

여야 합니다. 성령의 여러 구절에서 인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로마서 2:4)

'그러나 내가 금후를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디모데전서 1:16)

또한 "경계하며"라는 헬라어의 뜻은 '증거를 대다', '유죄로 판결하다', '질책하다'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하여 죄를 깨닫고 각성시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

하여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계하며 권하여야 합니다. "권하라"는 '용기를 북돋우다', '위로하다'라는 뜻으로 그릇된 길로 가는 자를 책망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하여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저희의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에서 "직무"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해석은 목회 사역을 포함한 '여러 가지 봉사'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께서 주신 설교와 교육을 포함한 모든 직무를 다하라고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교회)

영과 진리로의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는 예배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성하고 거룩하고 환경적으로 영적인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야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많은 치장을 하고 거룩하려고 가운을 입고 다양한 장식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신경 씁니다. 물론 그 모든 준비를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고 마음으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교지에서 예배를 위해 어떤 치장도, 장식도 할 수 없지만 가장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예배드리

는 자의 간절한 마음과 영적인 갈망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나오는 자들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감격 그 자체가 됩니다.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기도도 간절한 마음으로 간단명료하고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반응은 기쁨의 얼굴 표현에서 보여집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야 하고 또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외에는 추상적인 부분들이 너무 강조되고 외적인 분위기를 신경 쓰다가는 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고 분명히 가르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번제와 잘 준비된 제물들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집어치우라고 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에 보면 각종 절기 행사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하시면서 살찐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칠지라도 내 앞에서 하프를 연주하고 찬양을 부를지라도 거들떠보지도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강경하게 예배를 거부하시는 것일까요? 삶에서는 어떤 변화도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떠들썩하게 예배만 드리는 자들의 모습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가난한 자를 짓밟고 간음하며 도적질하고는 예배때만 거룩한 척하는 모습에 가증한 자라고 하시며 집어치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좋아하지도 않아요. 듣지도, 듣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자신의 죄악을 숨기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예배가 자신의 죄를 사함 받는 방편만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만홀이 여김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죄를 뉘우치며 지으면서 예배를 통해 죄사함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조금도 변하려고 하지 않으시면서 열심을 다해 예배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악한 행위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반드시 삶의 예배가 뒤따라야 합니다. 예수 믿은지 10년 20년 지나도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나의 연약함만 탓하면서 예배에 나와 죄 용서만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집어치우라"고 하실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외적인 요소가 아닌 마음을 보시며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부족함을 가진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하지만 그 예배로 인하여 내 영이 살아나는 능력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점점 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오직 너희는 공의를 물처럼 흐르게하고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암 5:24)

gyaepa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피해자 불분명한데...' 中 기독교인 사기 혐의로 잇단 체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 확정 이후 중국 내 종교 억압이 강도를 더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기독교인을 '피해자 신고 없는' 범 죄 혐의로 체포하는가 하면 증거 조작을 위해 고문까지 가했다는 증인이 전해지고 있다. 기독교 박해감시기구 차이나에이드(대표 밥푸 목사)에 따르면 지난 18일 중국 쓰촨성 수이닝시 경찰이 기독교 여성 3명을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정확한 체포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해당 여성들에게는 은행에서 일했으며 기독교 단체의 기부금 입금과 송금을 도왔다던 공통점이 있다.



기 혐의로 체포했다. 같은 이유로 지난 8월 린펀시 연약가정교회와 야오 가족 캠프 현장을 약 100명의 경찰이 급습해 목사 3명을 사기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차이나에이드는 중국 수사기관이 증거 조작을 위해 해당 목사들을 고문하며 자백을 유도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연약가정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피해자임을 진술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금전적 피해를 준 가해자로 고발토록 압박하며 더는 연약가정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시진핑 정권은 사회주의를 다시금 실시하기 위해 '종교의 중국화'에 힘쓰고 있다. 현재 이에 맞지 않는 걸림돌은 모두 제거하려는 물리적 강압적 종교 탄압이 펼쳐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접어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과거 고난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기독교가 존재하고 발전해왔기 때문에 미래에도 선교 등 해야 할 것들을 지혜롭게 잘 해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오 마이 갓!" ...기독교 선진국서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

5명 중 4명꼴로 신앙 생활을 포기했다. 182년 된 교회는 교인이 줄어 문을 닫기도 했다. '기독교 선진국'으로 거론되는 영국과 미국의 자화상이었다. 영국 스코틀랜드교회는 60년 넘도록 성도가 쉽 없이



줄었다. 30일 스코틀랜드교회 총회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스코틀랜드교회 교인은 27만300명. 전년도(28만3600명) 대비 4.7% 감소한 수치다. 2000년(61만명)과 비교하면 절반 넘게 예배당을 떠났고, 교인이 가장 많았던 1950년대(130만명)와 견주면 감소율은 80%에 육박한다. 예배 참석자 평균 연령은 62세에 달했다.

미국 교회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기독교여론조사기관 라이프웨이리서처에 따르면 2022년 남침례회(SBC) 교인은 1322만명. 전년도(1368만명) 대비 3% 줄어 1970년대 이후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했다. 교인이 가장 많았던 2006년(1630만)과 비교하면 5명 가운데 1명이 교회를 떠난 셈이다. 남침례회는 최근 3년간 해마다 교인 3%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인 교인 감소에 문을 닫은 교회도 있다. 미국 앨라배마주 파이브마일장로교회는 교인 감소로 18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2002년 약 40명이었던 교인은 문을 닫을 당시엔 9명이었다. 이 교회를 담임한 사론 아이히 목사는 "교인 대부분이 80대다. 많은 교인들이 세상을 떠났거나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 (교회 문을 닫게 돼) 슬프다"고 했다.

"하나님은 내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 이 질문에 영국인 절반(57%)이 고개를 끄덕였다. 1981년(28%)에서 2배 이상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설문에서다. "신을 믿는다"고 답한 이는 절반도 안 됐다(49%). 이 역시 1981년(75%)보다 확연히 감소한 수치다. 6명 중 1명(16%)만 '매일 기도한다'고 했고 4명(63%)은 '겨울·절대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매주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인원은 10명 중 1명(11%)에 그쳤다. 1년에 한 번도 교회에 안 가는 인원은 7명(67%)에 육박했다.

미국 국민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미국 시카고대 전국여론조사센터(NORC)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일반사회조사(GSS)'를 보면 미국인 절반(49.6%)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한다"고 답했다. 역대 최저치다. 2008년(60%), 2012년(57%), 2018년(53%)에 이르기까지 비율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교회에 절대 가지 않는다"고 답한 인원은 3명 중 약 1명(34%). 1972년 이래 NORC가 받은 답변 중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미국인 가운데 무교 비율은 27%로 2006년(16%)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 NCC 사상 최초 흑인 여성 회장 겸 사무총장 선출

미국 기독교교회협의회(NCC)가 메슈티 머피 매켄지(사진) 감독을 회장 겸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이 NCC 회장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NCC 이사회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총회에서 NCC는 이같이 결정했다. 매켄지 감독은 성명을 통해 "NCC에서 봉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협의회 내 모든 교단과 소통하고 10만 교회, 3000만 이상의 교인을 잘 섬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임한 짐 윙클 회장을 대신해 매켄지 감독은 석달 뒤부터 임시회장을 맡은 바 있다. 그는 아프리카 감리교 감독교회(AMEC)에서 여성 최초로 감독을 지내기도 했다. 2009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 신설한 종교사회협력국(OFBNP)초대 위원을 맡기도 했다.

매켄지 감독은 메릴랜드대와 하워드대를 졸업하고 UTS(United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4년 허핑턴포스트가 지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50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주님께서 맡기신 자녀위해...

(2면에서 계속)

중국에서 제도권을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고학년까지 제도권 밖에서 교육하는 가정은 중국 내 대학에 진학시킬 수 없다. 이들은 자녀를 재정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어려운 해외 대학에 보내거나, 아예 고등 교육을 포기해야 한다.

이는 가혹한 선택이다. 많은 중국 가정은 해외 고등 교육을 열망하지만, 그 비용은 엄청난데 비싸다. 국내에서 선택하는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은 젊은이들을 고등 교육에서 완전히 차단한다. 슬프게도 중국 기독교인들에게 이는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많은 기독교인 가정은 신앙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했다.

지난여름, 중국 정부는 교육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여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중국 가정에서 자녀의 미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고자 의도되었던 방과 후 심화 수업과 과외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에 대해 많은 호보가 이루어졌다. 표면적인 목표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지만, 이러한 강력한 규제에 의해 지역 공무원이 교회학교와 같은 비공

식 교육에 대해 그들의 권한 내에서 가혹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최근의 규제와 중국 전역에 걸친 종교 박해의 전반적인 강화는 중국 전역에 걸쳐 신자들이 힘들게 구축한 교육 인프라를 거의 해체시키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교육 부문에 종사하는 기독교인들이 참여하는 학교는 중국 전역에 걸쳐 500여 개에 이르렀다.

오늘날 신자들은 기독교 학교 운동이 거의 질식 당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부가 이러한 기독교 학교를 폐쇄하는 쪽으로 관심을 돌린 이후, 교회가 운영하는 소규모 학교의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홈스쿨링이 그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관해 이야기한다.

교회학교를 위한 공공 공간이 계속 줄어들면서 일부 교회학교는 문을 닫았고, 일부는 팬데믹 때문이 아니라 박해로 인해 완전히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2020년 초 팬데믹이 덮쳤을 때, 중국 전역의 학교는 몇 달 동안 문을 닫았지만, 거의 모든 중국 학생은 2020년 가을부터 대면 수업에 참여했다. 최근 중국이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종으로 인해 다시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 학생들은 다시 원격 수업에 직면했다.)

지난 봄, 중국 당국은 안후이성의 기독교 학교를 급습해 폐쇄하고, 교사 4명을 체포했다. 그중 두 명은 지금도 수감 상태에 있고, 나머지 둘은 최근에야 석방되었다. 그 학교의 많은 가족은 이제 자녀들을 다시 공립 학교로 보내야 했고, 그들의 일부 자녀들이 교사들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보도되었다. 또한 이 학교의 학부모들 역시 더 광범위한 지역사회와 공무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10월에는 장수성 경찰이 홈스쿨 커리큘럼 판매원과 그와 관련된 5명을 체포했다.

교회학교와 마찬가지로 홈스쿨링도 중국에서는 불법이다. 기독교계는 홈스쿨링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떠들썩하지만, 홈스쿨링은 아직 교회학교가 최근 겪은 것과 같은 강력한 단속에는 직면하지 않았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홈스쿨링에 관하여 부모들이 그들의 교육적 행동으로 인해 심문받거나 구금되기도 했다. 지난여름, 산시성 타이위안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아바 자오 웨이카이(Zhao Weikai)가 세 자녀의 홈스쿨링과 관련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의 사건은 다른 곳에도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 자오 웨이카이는 유일하게 가명인 아닌 본명이다.) 그는 아직

감옥에 갇혀 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에서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다만 최근 변화한 점은 단속의 범위가 특정 지역의 그룹이나 네트워크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루하루

현재 수감 상태에 있는 황 목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핍박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가정교회인 우리는 사회의 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핍박 받을 수도 있고 주류 사회로부터 차별받고 배제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타락한 죄인들에게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제자들이 주인보다 높여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난여름, 한 가정교회 지도자 그룹에 올라온 기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중국 시민 사회 내의 교육 공간은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으며, 곧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 기독교 교육은 이러한 추세의 일부이며 더 큰 어려움과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지혜가 부족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많

은 중국 가정은 공교육 시스템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 기독교 가정만이 교육 시스템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비기독교인 가정도 심한 압박과 창의성과 독창적인 사고에 대한 강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립 학교 시스템을 기피한다.

상하이에 사는 두 아이의 어머니는 "제가 홈스쿨링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자유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녀는 기독교인이지만 공립학교의 경직된 구조에 대한 불만 때문에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

"저는 중국의 공교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너무 형식적이고 창의성이 부족하며 아이들의 하루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책을 읽을 시간도 없고 운동할 시간도 없죠."

남편의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에 더 가깝다. 그는 자녀와 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기독교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홈스쿨링을 선호한다.

이 어머니는 자신과 남편이 홈스쿨링에 대해 심문을 받은 적이 없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걱정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하루하루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해외 유학을 위해 딸을 중국

에서 떠나보낸 상하이의 아버지는 루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가족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의 가족은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많은 청소년이 혼자서 해외로 이주할 경우 당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이 경험하는 비현실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 해외 교육의 기회가 일부 아이들에게는 주어지기도 하지만, 이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귀국해 중국 내에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 것 대신, 영구적인 이민을 선택할 수도 있다.

루는 자녀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갈망하는 다른 중국 기독교인 부모들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지만, 많은 가정은 자녀 교육을 우선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고 걱정한다.

루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고통의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자기 의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녀인가요?"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70. 조병요 (1881-1961)

조병요(趙秉堯, 趙柄堯)는 고종 18년이 되는 1881년 9월 16일에 평안남도 평양에서 출생했다. 그는 동갑내기과 결혼하여 평양에 있던 소문안에서 거주하다가 23세가 되던 1904년에 부인과 함께 하와이 이주길에 올라 그해 8월 22일에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조병요는 1905년경에 회중 성당 선교사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설립했고, 오아후 칼리지로도 알려진 푸나호우(고등)학교 식당에서 접시닦이로 일하면서 주일이면 부인과 함께 성공회 미사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식이 있었던 그는 성공회 교인들과 같이 1907년 9월에 하와이에서 대한제국 부흥 운동과 교육 장려를 목적으로 전흥협회를 조직하고, 이듬해 회보를 발행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조병요와 그의 부인은 1908년에 하와이에서 영세 받은 최초 교인 중 두 사람이었다. 이로써 그는 평생 성공회를 떠나지 않았다.

1910년 4월에 전흥협회가 대한인 국민회에 통합되었을 때 조병요는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38세였던 1918년에 호놀룰루에 있었던 이슬라니 학교를 졸업했다.

박승준 사제와 박상하 평신도 사역자가 사임한 이듬해인 1919년에 하와이 성공회는 조병요를 성 누가 성공회 성당에 평신도 사역자로 파송하였다. 한인 성공회 선교의 중심은 호놀룰루였지만 농장마다 성공회 선교지를 설립하기 위하여 농장 지도자를 조직하였는데 그는 오아후섬 가후쿠와 하와이섬 코나에서 동원된 지도자였다. 마우이섬의 라하이아에서 13명의 한인 지도자를 동원할 수 있었고, 하와이섬의 울로와루, 고타라 그리고 막가팔라에 한인 성공회 선교지를 설치하고 야간학교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에서 이들 성공회 선교지는 성공하지 못했다. 한인 노동자들이 일을 따라 이동하였기 때문에 세워진 선교지마



지 문을 닫기 일쑤였다.

박승준 평신도 지도자를 지도했던 캐논 포트와인 사제의 지도하에 조병요는 1908년 이후 중국인 성 엘리자베스 성공회 성당 예배실에서 중국인 미사와 어긋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는 한국 성공회가 보내준 한국어로 번역된 영구 기도책을 사용하였으며, 주교의 허락하에 미국 기도책을 한국어로 직접 번역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1920년 초까지 성 누가 성공회 성당에 등록된 교인은 110명이었다.

1921년 10월에 이슬만 계열과 박용만 계열로 분열된 한인 단체를 연합하여 하나의 기관을 만들기 위하여 국민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하와이 대조선 국민대표 기성회가 조직되었을 때 조병요는 총무로 선출되었다. 본 기성회는 한인사회의 자치와 단합을 도모하였고, 독립 자금을 모아 임시정부를 지원하였으며, 미국 정부와 국제기구를 상대로 대한 독립을 홍보하였다.

1922년 9월에 한국 학교를 열었다. 성당에 출석하는 어린이가 70명 이상이었는데 오후 학교에 출석하였다. 세 분의 교사가 가르쳤는데 이 중 최순이 교사는 하와이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음악과 노래를 한국어와 영어로 가르쳤으며, 본 성당 오르가니스트였고, 라하이아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던 승무시를 대신한 교사였다.

조병요는 1922년 10월에 보낸 보고서에서 존 D. 라모디 주교의 허락을 받아 한국어로 된 공동기도책을 요청했다. 이 기도책은 하와이에서 처음 300달러를 헌금한 H. 클락 부인의 도움으로 출판되었다.

호놀룰루에 있는 국어학교 학생은 기독교원 학생 이외에도 약 150명이 있었다. 하와이 정부가 외국어 학교를 제한하는 법령을 실행하였으므로 과거에 비하면 약간 감소된 숫자였다. 조병요는 다른 4명의 교사와 함께 팔라마 국어학교를 운영하였는데 70명이 등록하였다. 그 외 두 학교가 더 있었다. 엠파달옥과 그의 딸이 필라하 학교에서 50명의 학생을 가르쳤고, 현 순 목사와 이윤호가 감리교 한국학교에서 30명을 가르쳤다. 이들 학교는 국민보에서 출간한 교과서를 사용했다.

조병요는 1923년에 평신도 사역자를 그만두었다. 그의 사역은 4년간이었다. 그를 이어서 조광원이 한국 성공회 막 N. 트롤프르(조마가) 주교의 파송으로 그해 12월에 하와이 성 누가 성공회 성당을 맡았다. 평신도 사역자를 그만두었지만 조병요는 새로 부임한 조광원을 도와서 한인 교인들을 설득하여 본 성당이 한인들의 성당이 되도록 비전을 심었고, 모든 교인이 본 성당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교인들은 1924년에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1,800달러를 헌금했고, 미국 성공회가 700달러를 보조하여 1925년 부활절에 입당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했지만, 그해 5월 3일에 팔라마 지방의 '카노아레인' 길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조병요는 조광원을 도와서 성 누가 성공회 교인들이 한국에 있는 한국인을 보조했고, 한국에 있는 고아원에 기부했다.

조병요는 1920년대 후반에 임시정부 주석 김 구로부터 편지를 받고 하와이 동포에게 임시정부가 재정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모금에 앞장섰다. 1931년 11월에 오아



력복 온라인을 이용한 비영리단체 재정보고 무료 강사에서 제임스 구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대표 (왼쪽에서 세 번째가 조병요)

후섬의 와이아와 지역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김 구가 계획하고 있던 특무공작 자금을 지원하여 이봉창, 윤봉길 등의 거사를 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932년 2월 애국단이 조직되었다. 그런데 1934년 4월에 조병요는 다른 11명과 함께 특무공작을 후원하는 위의 애국단에 참가하면서 중국지역의 광복전선통일운동에 관여하였다. 애국단은 1936년에 한국독립당 하와이지방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조광원이 부제가 되던 1923년에 평신도 지도자직을 그만둔 조병요는 12년만인 1935년에 다시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 조광원 사제를 도왔다. 그의 평신도 지도자직은 1939년까지 4년간 계속되었다.

1936년에 조병요는 하와이 대한인 국민회 총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는 국민부담금 제도를 설치하여 국민회가 가진 채무를 청산하였고, 혈성금 제도를 만들어 임시정부의 경상비를 조달하였으며, 호상부 제도를 실시하여 나이 든 동포들을 보조하였다. 이듬해 11월 3일에 발행된 국민보에 총회장 조병요는 아래의 '개국 기원절'이라는 제하의 글을 실어 '예배 5일'이라는 단어를 구사하는 기독교인으로서 대한 독립을 기원했다. "음력으로 10월 3일, 즉 금년에는 양력으로 11월 5일 [예배 5일]이 우리나라 개국 기원절 (개천절)이 을시다. 하와이에 거주하는 우

리가 연내로 흔히 잊고 그대로 지나간 적이 많은 것은 유감이나 이번에는 잊지 말고 기억하고 내년에는 좀더 늦게 기념하여 봅시다. 근본을 잊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또한 개국기원 이후로 반만년 험악한 역사적 영광을 기억합니다. 조선의 영혼과 역사의 영광이 우리의 양심을 감시합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의 광복 대업의 기회가 왔고, 따라서 일이 있으니 우리는 역사의 지도를 구할 때입니다. 5월 하오 7시에 일반 회우는 총회 집회실로 회집하여 이날을 잘 지킵시다. 특별한 소식도 있습니다. 미국 19년 11월 3일."

해외한족대회가 1941년 4월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되었을 때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위의 위원회는 민족통일운동과 독립운동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에 의사부를 두고, 로스앤젤레스에 집행부를 설치하였다. 조병요는 이듬해 3월에 의사부 위원으로서 워싱턴에 특파되어 미주 각 지역 한인을 순방하였고, 위정전 외교위원회를 방문하였으며, 전쟁에 처할 하와이 한인의 정형에 대해 협의하는 등 크게 활동했다.

조병요는 1961년 1월 13일에 향년 80세에 소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7년에 그의 독립운동을 기념하여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p> <p>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대학생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9: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 521-09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9:30(월-토)</p> <p>telgusa@yahoo.com / www.lbcg.com Tel: (323) 8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가주든든교회</p>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Y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금)</p> <p>Tel: (714) 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학교: 오전 11:20 영양예배: 오후 1:20 영어권(장소:KDC, 캠퍼드캠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Tel: (310) 719-2244, www.dkc.org 15411 S. Gaderi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계속을 돌아다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p> <p>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 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미주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예배)</p> <p>Tel: (310)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영양)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세례기도회(월-토): 오전 6:00</p> <p>Tel: (213) 381-2202, www.mpcsls.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626) 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베델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한요</p> <p>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수-목),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 854-4010 / bibleh.com / www.bkc.org 18700 Hanover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세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세계선교회</p> <p>담임목사: 김장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매일 저녁 8:00(월-토)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213) 388-1927 / www.wmcc.com / worldmissionchurch2@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p>
<p>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e-Feng Church)</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p> <p>Tel: (310) 749-475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부)</p>	<p>열매교회</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엘피스사역원</p> <p>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관리교회협동목사)</p> <p>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평신도 여성 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세미나 3. 알콜사역 4. 네트워킹사역</p> <p>www.elpisfamily.org Tel: (562) 984-98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영양예배: 오후 1:30(수-목),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9:15, 11:30</p> <p>Tel: (714) 446-6202, www.groceim.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p> <p>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213) 665-0009 l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좋은마음교회</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714) 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 M 예배: 오전 9:45(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예배: 오후 8:00(본당) 세례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p> <p>Tel: 310-370-5500, www.torancec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하늘사랑교회</p> <p>담임목사: 김덕수</p> <p>주일예배: 오전 11:00 세례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예배: "영양강화 집어치어" 오전 9:30 오후 7:00</p> <p>Tel: (213) 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78)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외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제일교회)



9장 회심하지 않는 자의 죽음은 자신의 책임(1)

교리 7: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음은 사람들이 멸망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멸망당하는 사람들 자신의 뜻이며, 더구나 그들 자신의 고의적 뜻이다. 그들이 죽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1.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

만일 여러분이 지옥에 가려 한다면, 무엇이 막을 수 있겠는가? 만일 여러분이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자신의 포도원에 대해서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사 5:3,4)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여러분에게 이성을 주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신을 멸망당하도록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 죽게 하셨으며, 여러분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도록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자신의 말씀 안에 기록하시고 자신의 성령으로 인치시며 자신이 사역자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여러분을 기다렸으며 여러분의 계몽을 참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인내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 고통을 겪었다. 성경께서는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죄인이여! 회개하라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1)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종말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는가?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친구를 미워하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가? 여러분은 언제 죄를 멀리하고 돌이켜서 자신을 하나님께로 바치고 여러분의 구세주에게 영혼을 맡기겠는가? 당신이 머뭇거리거나 지체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고 계셨다. "오늘,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에 왜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 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지금 돌아오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갈 3:1).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수백 번 들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죄의 악함과 세상과 죄가 주는 모든 쾌락과 부유함의 헛됨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많이 들었다. 비록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회심시키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여러분은 살아 있다. 만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회심하지 않고 멸망당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의 뜻인지를 이제 판단해 보자. 만일 여러분이 지금 죽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죽으려 하기 때문이다.

2) 세상과 육신에 대한 사랑이 당신의 귀를 막고 있다. 다른 경건한 친구들처럼 여러분도 똑같은 가르침과 시간과 자유를 가지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왜 여러분도 성도들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될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부르실 때,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 자비를 약속하셨을 때, 당신에게는 어떤 예외를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당신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는 달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금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쫓아 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렸고 도망쳤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은 오지 않았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머리와 신랑으로 모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의사를 필요로 할 만큼 그렇게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역자들처럼 말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됨을 원하지 아니 하나이다"(눅 19:14).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원의 날개 아래로 여러분을 모으기를 원하셨지만, 여러분은 원하지 않았다(마 23:37).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가?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시 81:13).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신 5:29).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신 32:29).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셨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육신을 더 사랑했다.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존경을 표하는 것 같으나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2. 하나님의 최선에 대한 악인의 보답

그러하기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의 강퍅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

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시 81:11,12)라는 구절에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어 여러분에게 이성을 제시하시며 질문을 던지신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반대할 만한 이유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너희 죄인들에게 내가 무슨 해로운 일을 했느냐? 나는 너희에게 많은 자비를 베풀었다. 그 중에 무엇 때문에 너희가 나를 멸시하느냐? 너희의 원수가 나와, 아니면 사탄이냐?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이 나와, 아니면 탐욕적인 너희 자신이냐? 너희를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나 죄악된 생활이냐? 만일 내가 멸망했다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나를 버림으로 내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이 아니냐?"(참조 롬 2:5). 하나님께서는 짐승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하시는 논증을 들도록 불리라고 계신다. "하늘이여 들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고, 나뭇짐승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사 1:2-4).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고 하나님과 생명의 뿌리와 깃털을 추구하는 것을 보이고,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말씀하시며, 여러분이 좀 더 유익한 종들이 되도록 부르셨다.

younsuklee@hot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두더지를 잡아라

어느 날 아침 뒷뜰에 나가 보니 두 군데 정도 수북이 작은 흙 동산이 만들어져 있었다. 순간적으로 '두더지가 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뒷뜰에 심은 부추랑 파도 잘 자라고, 당근도 잎이 예쁘게 올라오고, 작년에 심은 도라지에도 파릇파릇 잎이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두더지가 구멍을 만들었으니 어쩔 수 없이 야채들을 파헤쳐 구멍을 메워야 했다. 오후에 퇴근하고 와 보니 또 다른 흙더미가 봉긋이 올라와 있었다. 두더지와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잔디를 깎으러 온 아저씨가 두더지가 파 놓은 구멍에 물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직접 시범을 보여 주었다. 이심 분이 더 지나도 계속 물이 들어가는 것을 보니 물을 길어도 판 것 같았다. 물을 집어넣으면 두더지가 판 땅굴에 물이 차서 두더지가 땅 위로 나온다고 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또 새로운 흙더미가 세 개나 만들어져 있었다. 호스를 구멍에 대고 물을 넣는데 아저씨 말대로 갑자기 두더지가 얼굴을 들이내며 올라 오는 것이 아닌가. 기절 초풍을 해서 얼른 곁에 있던 빈 화분으로 덮어버렸다. 그러잖아도 바쁜 일상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더지 때문에 신경을 쓸 생각을 하니 스트레스가 되었다. 두더지가 귀엽게 묘사되는 동화 생각도 나고 두더지를 죽이면 잔인하다고 말하는 막내의 말도 생각났지만 결국은 흙더미에 가서 두더지 최후가스(?)를 사서 구멍에 넣었다. 며칠 후 보니 구멍 위에 거꾸로 엮어 놓은 화분 밑에서 두더지가 죽어 있었다.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어원은 가정의 달이어서 자녀 양육세미나, 부부 관계 세미나를 부탁받은 일이 적잖이 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 건강한 부부 관계, 자녀 관계는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미리 관계를 잘 꾸리고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들을 초기에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특히 부부 문제에는 큰 어려움이 나타나기 전에 부부 간의 헌신의 기초를 닦아주는 수많은 작은 두더지들이 있기 마련이다. 잔 오트버그 목사님은 건강한 부부 관계를 생각할 때 사랑의 삼각형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삼각형을 이루는 세 모서리는 친밀함과 열정, 그리고 약속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헌신의 약속 없이 친밀함만을 추구하는 관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부부 간의 처음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심이 쉽게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 결혼식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한 부부 간의 언약이 나의 유익에 따라 쉽게 변하는 계약이 되어 버린 것이다. 로맨스나 어떤 매력에 의한 끌림으로 표현되는 부부 간의 열정도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점점 사그라지기 마련이다. 식당에서 밥 먹는 모습을 보면 그 다정한 정도에 따라 부부인지 불륜인지 알 수 있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결혼이 언약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참아내는 동시에 아내와 남편 사이의 친밀함을 가꾸어 가는 것이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정말 중요할 것이다. 일상의 삶이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아내와 남편,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친밀함을 위한 좋은 투자다. 그 시간이 반드시 근사한 장소에서 계획된 맛있는 이벤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마음을 나누는 대화라면 맥도날드에서의 커피 한 잔이라도 괜찮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정성껏 가꾸는 야채의 뿌리를 상하게 하는 두더지를 없애야 하듯 결혼의 뿌리를 갈아 먹는 작은 서운함, 불평, 무관심을 초기에 다룰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과 그 분과의 친밀함에 기초한 부부 사이의 친밀함이 가정을 지키는 행복의 열쇠라면 잘 모르는 사이에 부부 관계의 기저 속에 굴을 만들고 관계의 아름다움을 파헤치는 작은 두더지를 초기에 눈치채고 다스릴 때 건강한 부부관계가 유지될 것 같다. lpyun@apu.edu

Worldwide church directory grid with 48 entries. Each entry includes church name, pastor photo, name, and service times. Key churches include: 동부(NY,NJ)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부르크린제일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뉴욕센트럴교회, 뉴욕장로교회, 뉴욕효신장로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늘기쁜교회,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빛과소금교회, 새벽별주님교회, 은누리장로교회, 퀸즈장로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아르헨티나제일교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토론토가든교회, 하와이행복안교회,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멕시코 현지인교회.



목회서신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교회)

전 야구선수 강정호를 바라보며

전 야구선수인 강정호 선수를 참 좋아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실력이 좋았던 그는 2015년, 당시 한국인으로서의 꽤 큰 계약을 따내고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어러츠에 입단했다. 타격

도 좋았고, 수비도 좋았고, 무엇보다 팀 스피릿이 좋았던 강정호는 순식간에 미국 프로야구의 슈퍼스타가 되었다. 이대로만 하면 1억불이 넘는 계약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그에게 전혀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다. 비시즌인 겨울에 한국에 들어가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간 것이다. 게다가 잡히니, 자기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등

석했을 뿐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다. 거기다가 이미 2번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음도 드러났다. 재판을 받게 된 그는 결국 집행유예의 형을 받게까지 이르렀다. 인기가 생명이라 할 수 있는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도덕성은 땅바닥까지 추락했고, 미국행 비자를 받지 못하여 피츠버그 팀으로 1년 반 동안 돌아올 수 없었다. 피츠버그 팀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강정호 선수를 중남미 도미니카에 있는 작은 리그로 보냈다. 어떻게든 선수 경력을 살리고 실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강정호는 더 이상 메이저리그 야구선수로서 꽃을 피우지 못했다. 한국 프로야구 어느 팀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고, 32살, 한창 꽃피울 나이에 그는 갈 곳 없이 은퇴하여 사람들의 눈에서 잊혀져 갔다.

그리고 몇 주 전, 우연히 강정호 선수의 최근 인터뷰를 보게 되었다. 현재 남가주의 다이아몬드바 근처에서 야구야카

데미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는 도미니카 리그에 있을 때 한 선교사의 권유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그는 그때부터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한다. 비록 야구선수로서의 경력은 완전히 망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 기회를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도 아깝지만, 그보다 얻은 것이 더 많으니, 바로 크리스천이 된 것이라고 한다. 크리스천이 되어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고, 예전과는 다른 평안한 마음으로 평안한 삶을 살게 된 것이 그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귀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강정호 선수가 반복해서 했던 두 가지 이야기가 내 마음을 울렸다. 첫째,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그의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둘째,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회

개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회개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단지 '죄송합니다'하는 한마디의 말을 뜻하지 않는다.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을 돌이키는 전적인 결단과 실천을 뜻한다. 그러니 회개는 한 마디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변화여야 한다. 이런 삶의 변화는 한 번의 결단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계속되는 결단과 실천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자. 한 번 회개했으니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주신다는 가벼운 돌이킴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려는 전적인 회개의 삶을 살아가자.

그와 함께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강정호 선수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wmclakim@gmail.com



선한청지기교회 말씀축제에서 유기성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선한청지기교회 2023 봄 청지기 말씀축제

“한국교회의 위기는 은혜는 받지만 변화가 없는 것”

선한청지기교회 2023 봄 청지기 말씀축제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요 15:4-5)'는 주제로 5월 19일(금)부터 21일(주일)까지 열렸다. 이번 말씀축제는 유기성 목사(위지엠 이사장, 전 선한목자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송병주 목사 인도로 시작된 21일(주일) 오전 9시20분 2부 예배는 하경환 장로가 기도했으며 한마음 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유기성 목사가 '열매

를 많이 맺으리니(요 15: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유기성 목사는 “한국교회의 위기는 은혜는 받지만 변화가 없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은혜가 없다는 것”이라 말했다. 유목사는 “본문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다. 본문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며 열매를 맺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

는 것”이라 말했다. 유 목사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9가지 모습으로 열매가 맺어지며 예수님 그분이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데 말씀처럼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를 향해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분명치 않아서이다. 나름대로 무단히 예를 쓸 뿐”이라고 지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삶의 열매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대로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죄성과 더불어 예수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것에 대해 믿어지게 되면 죄와의 싸움은 전에는 내가 싸웠지만 이제는 내안에 계시는 주님이 싸우시게 된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주님을 생각하면 죄는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된다.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실재가 되면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 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는 유기성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정주채 목사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다

정주채 목사 특별초청 연합말씀부흥회

“믿음의 역사는 예배, 동행, 사역, 소망을 통해 성취”

오렌지 카운티 브레아에 위치한 사모하는교회(담임 백승철 목사)와 하늘꿈교회(담임 정인석 목사)는 연합으로 지난 5월 20일(토) 오후 7시부터 21일(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에 한국 향상교회 은퇴 목사인 정주채 목사를 강사로 초청, 연합말씀부흥회를 개최했다.

부흥회 첫째 날은 황규문 장로(사모하는교회)의 기도와 “믿음의 나타남(히 11:1-10)”이라는 제목으로 정주채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정주채 목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역사는 예배, 동행, 사역, 소망을 통해 성

취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둘째 날(주일) 오전 11시에 이명성 목사(하늘꿈교회)의 기도와 바순 연주(하늘꿈교회, 심인보 집사)로 시작해서 정주채 목사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시 23:1-6)”라는 제목으로 공급, 인도, 보호, 영광,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말씀을 전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 볼 것”을 강조했다. 오후 2시 예배는 합심기도 후 “회개와 감사(갈 2:20, 시 116:12-14)”를 제목으로 “회개와 감사를 위한 조건으로 ‘죄

란 무엇인가?”에 관해 율법적 관점, 윤리적 관점, 은혜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말씀을 전해 부흥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여정이 복된 길인 것을 가슴에 다시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정주채 목사는 1985년 잠실중앙교회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다 본 교회가 2000년 분립 개척한 용인 향상교회를 섬기기 위해 잠실중앙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용인으로 내려가 개척교회를 섬겼다.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교회를 섬기다가 선교사로 담임 사역자가 선교지로 떠난 것과 같은 감동을 한국교회에 안겼다. 역시 성도 수 2000명이 넘으면 분립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2011년 흥덕 향상교회를 세워 분립 개척했다. 정주채 목사는 헌법에 명시된 70세 은퇴 기한을 채우지 않고 65세 은퇴했는데 그 이유는 “후배 목회자를 통해 새로운 목회의 활력과 원로로 남지 않고 후임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목회적 소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회고했다.

현재 대표적 사역으로 정주채 목사는 산돌 송양원 목사 기념 사역회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정주채 목사는 한국교회에서 처음과 끝이 더 좋은 목회자로, 목회자들이 존중하는 목회자로 존경받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38회 사랑의 마당축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38회 사랑의 마당축제’

“하나님이 주시는 씩은 마음의 씩, 이 행사가 씩의 자리 되길”

제38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마당축제’가 ‘Thanksgiving’이란 주제로 5월20일(토)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 지역에 위치한 ‘Buena Park Junior High School’에서 개최됐다.

감사한인교회와 해피빌리지(KAVC 미주한인봉사단), 남가주밀알선교단에서 공동주관하고, GBC미주복음방송과 Caravan Canopy, Hanmi Bank, 새생명비전교회, OC한인라이온스클럽의 특별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사랑의 마당축제는 총 37개 교회와 단체들이 협력하여 열렸으며 맑고 화창한 초여름의 날씨에 약 660여 명의 장애인들과 가족들, 스태프와 봉사자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1부 순서로 해피빌리지 김창호 국장의 환영사와 감사한인교회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는 최일렉스 장로의 기도이며 구봉주 목사(감사한인교

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은 우리마음의 쉼이다. 이 자리가 서로 사랑하고 받는 곳이다. 쉼은 우리가 사랑할 때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주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즐기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기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또한 ‘미주

고르에술단’이 ‘난타’공연과 위심문화선교단체 ‘God’s Image’의 찬양과 공연을 했다. 각 부스에 마련된 맛있는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한 후 계속 진행된 2부 순서에는 신나는 댄스파티와 양희원 집사(남가주밀알)의 인도로 진행된 재미난 레크리에이션, 행운권 추첨의 푸짐한 상품 등으로 참석한 발달장애인들과 가족, 그리고 봉사자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박준호 기자)

예장 미주중부노회 복구 감사예배

미주중부노회 복구감사예배가 5월29일(월) 오후 4시 영생장로교회(담임 김혜성 목사)에서 열렸다. 복구위원회 김종준 목사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복구위원회 회계 박수갑 장로 기도와, 총회장 권순웅 목사가 ‘살렘 부흥의 일꾼(골 3:12-

1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는 박광재 목사가 회고사와 축사가 있는 뒤, 동부지역 워싱턴신학대학교(이사장 문선희, 총장 이억섭), 서부지역 아메리칸 신학대학교(총장 김혜성 박사)와 협약식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2023 GMI 유스오케스트라 단체사진

GMI Youth Orchestra 콘서트

GMI 유스 오케스트라(은혜한인교회) 여름 콘서트가 지난 5

월 9일 브레아에 위치한 Curtis theatre 에서 정승재 교수(플러

트 컬리지 바이올린)의 지휘하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콘서트는 오페라의 유령을 시작으로 All I Ask of You, Dove Sono, Toréador song, O mio babbino caro, 오펜바흐의 천국과 지옥 서곡 등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고 솔리스트는 소프라노 지경, 소프라노 강보경, 바리톤 권상욱 목사와 함께 하는 무대로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GMI 유스 오케스트라 PTA는 연주후에 bake sale를 통해 모아진 도네이션을 플러튼 은혜한인교회 앞에 위치한 소방서에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 문의: gmilyouthorchestra@gmail.com



예장미주중부노회 복구 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동부교계 기사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7회 총회

식을 마친 후 황신재 목사(철레 선교사)는 '탈교회 시대 선교적 교회로의 목회의 중요성'의 제목으로 강의 하며 선교사들에게 도전장을 주었다. 이어 한세영 목사(선교회 서기)의 보고와 유재일 목사(전 총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사모관광...뮤지컬 모세 관람

한편 회무가 진행되는 낮 시간에 사모들을 위한 관광이 준비됐다. 이른 아침 사모들은 랭커스터(Lancaster)를 방문하여 "Sight and Sound Theater"에서 뮤지컬 '모세를 관람했다. 익숙했던 '모세' 이야기를 화려한 화면 연출과 사운드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드라마틱하게 표현이 되어서 더 큰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피날레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온 맘으로 찬양드릴 때 여기저기에서 사모님들의 감격에 찬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으며 사모들은 모두 큰 감동을 안고 돌아왔다.

셋째 날

셋째날인 목요일 새벽예배는 정형구 목사(아시아노회장)의 인도로 기도 박종욱 목사(뉴욕 서노회장), 이삼열 목사(서북미 노회장) 성경봉독, 전총회장 이영섭 목사('그리스도의 인내' 히12:1-3)의 설교 후 고택원 목사(전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새벽예배를 마친 후 참석자 전원은 특별히 마련된 뉴욕관광에 올랐다.

타임 스퀘어에서 찬양과 기도

대형 관광버스에 오늘 참석자들은 '자유의 여신상'을 만나기 위해 허드슨 강 Pier 61로 향했다. 총준위에서는 배 한척을 대어했고, 5월,6월 생일인 자들에게 왕관과 장미꽃을 전달하며 축하하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즐거움을 안겨 주었다. 그 다음 행선지는 'Summit 전망대' '뉴욕 센트럴파크' 'Brookfield Place' '하이라인파크' '타임 스퀘어'등 맨해튼의 명소 곳곳을 누볐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타임 스퀘어'. 광장에 모인 참석자들은 거리 예배를 드렸다. 찬송이 울려 퍼졌고, 퇴색되어 가는 미국을 회복시켜 달라는 간절한 외침이 하늘로 솟았다. 예배가 끊이지 않는 축제 같은 총회였다.

관광을 마친 일행은 저녁 기도회를 위해 뉴욕 센트럴교회(담임 목사)로 향했다. 조문휘 목사의 인도로 기도회가 시작됐고, 총회와 한국, 미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한 뒤 박현민 목사, 임병순 목사, 문정옥 목사가 마무리 기도를, 이윤석 목사의 식사기도와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넷째 날

제 48회 총회에서 다시 만남이다

예배와 축제, 위로와 계승을 모토로 교회가 예수그리스도로 총만하기를 간구하며 진행된 총회 마지막 날 아침 새벽예배는 김국현 목사(캐나다노회장)의 인도와 권영국 목사(뉴욕 남노회장) 기도, 성경봉독 김석진 목사(수도노회장), 설교 허재영 목사('하나님앞에 맡기는 삶' 삼상 24:1-7), 축도 김영수 목사(전 총회장)로 진행됐다.

이어 드려진 폐회예배는 김성국 총회장의 인도로 김상하 목사(델라웨어노회장)의 기도와 사모들의 특별 찬양이 있었다. 이어 김성국 목사는 '아멘 주에 수여'(계 22:20-21)의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김남수 목사(전 총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참석자들은 기쁨과 감동, 새로운 비전을 안고 2024년 5월 21일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각자의 사역지로 향했다.

(KCP 총회 취재팀)



총회장: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부총회장: 권혁천 목사(상항 중앙장로교회 담임)

<1면에서 계속>

총 목사고시 응시자 12명 중 10명의 합격을 보고하고 합격 증서를 수여했다. 이어 신규 임원교체가 있었다. 이날 새로 선출된 총회장 김성국 목사는 회장 분배 후 취임사를 통해 "전달받은 이 말씀과 헌법, 교단의 흘러오는 그 모든 정신과 성경적인 가치를 통해 하나님 뜻을 밝히는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 거룩한 햇살이 주님 오실 때까지 활활 잘 타도록 쓰임 받는 교단이 되기를 원한다. 특별히 교단의 정체성을 밝히는 교단 매거진을 발간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공천위원회 보고와 상비부 조직보고가 진행됐으며 상비 임원 선정 후 상비부 조직을 둘째 날 회무에서 숙회하기로 정하고 정회했다. 합격자 명단과 신입원은 다음과 같다. 김태준, 김호중, 민효식, 박이삭, 변정수, 오택근, 이성주, 이영철, 임지훈, 임하일, △총회장 김성국 목사(뉴욕), 부총회장 권혁천 목사(북가주), 서기 유진상 목사(하와이), 부서기 전동진 목사(필라델피아), 회록서기 허민수 목사(뉴욕동), 부회록서기 김요섭 목사(가주), 회계 서명환 장로(뉴욕남), 부회계 서성복 장로(동남부)

성경쓰기 시상식 & 사모들을 위한 힐링콘서트

한편, 총회 교육부 주관으로 지난 총회 기간 중 실시한 성경쓰기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본 성경쓰기 대회 수상자는 △대상 유순구 집사 △최우수상 손소영, 배영혜 집사 △우수상 윤봉구 집사 외 2명, △장려상 박옥양 성도 외 8명, △완필상 강화순 권사 외 73명과 참가자 광경속의 18명 등 총 108명이 참가했다. 또한 회무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사모들을 위한 힐링콘서트가 퀸즈장로교회 북카페에서 열려 사모들을 위로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 둘째 날

총회 둘째 날인 24일(수) 오전 5시 30분 허상희 목사(가든노회장)의 인도로 새벽예배를 드렸다. 박봉근 목사(동남부 노회장) 기도, 이택래 목사(위싱턴 노회장) 성경봉독에 이어 김만형 목사(합신 총회장)가 '너 너히 이겨 냅시다'(롬 8:31-31)의 제목으로 설교한 뒤 영영임 목사(전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오전 9시 회무처리에 앞서 친선 사절단의 인사와 전 총회장 영상 인사를 통해 제 47회 총회 개최와 총회장 김성국 목사 축하 메시지가 전해 졌다.

친선 사절단으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권순웅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장 김만형 목사와 4인, 대

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장 권호현 목사 외 4인,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장 송홍도 목사와 총무 장인호 목사가 참석했다.

선교의 밤...조윤호, 차재홍, 김재호 선교사 파송

이날 저녁 집회는 선교회 부회장 장성철 목사의 인도로 퀸즈장로교회 주빌리양상블의 연주로 시작된 '선교의 밤'에는 박성호 목사(선교회 부회계)기도, 조영철 목사(선교회 부서기) 성경봉독, 권순웅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장)의 설교가 있는 뒤 김선중 목사(선교회 본부장)이 조윤호(멕시코), 차재홍(우루과이), 김재호(필리핀)선교사를 소개한 뒤 오세훈 목사(선교회 이사장)의 서약과 파송선교사임을 공포했다. 파송



타임스퀘어에서 찬양과 기도하는 모습



제 16회 GIM 올네이션스 연합기도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

제 16회 GIM 올네이션스 연합기도 컨퍼런스

"복음의 자유와 정의 회복을 위해 함께 일어나자"

GIM 글로벌국제선교•교회 연합(대표 정윤명 목사) 주최로 한 제 16회 GIM 올네이션스 연합기도 컨퍼런스는 5월 21일 주일 샌프란시스코지역의 홍콩교회인 East Bay Channel Church (담임목사 Rev. Jonathan Wong)에서 Virtual로 온라인 연합기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역대기하 7장 14절 말씀을 주제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홍콩, 라틴·아메리카, 중동, 이스라엘(Jewish Messianic) 등 미국내 외 35여 다민족이 함께 Prayer Issues를 video로 발표하고 함께 기도하며, 효과적 인 복음의 선교와 교회 보호를 위한 Virtual 화상컨퍼런스대회를 가졌다.

정윤명 목사는 이번 대회에서 "미국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미국의 회복과 함께 지구촌의

핍박받고 억압받는 각 민족의 교회들의 복음의 자유와 정의 회복을 위해 함께 일어나 기도하며 격려하자"고 인사를 했다. North Dakota 교회의 Kevin Miller 목사는 "미국사회의 회개와 회복을 언급하며, 미국이 영적으로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어 세상에서 복음의 빛과 소금의 중심이 되자"고 발표하고 기도를 인도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미국의 주류 교회들은 "비전리와 공산 세력으로부터 침공과 핍박 탄압을 받는 각 민족의 기독교 신앙인들의 복음의 자유와 회복과 정의를 위하여 그리고 재해 지역과 억압당하는 이웃들, 교회들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돕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 GIM 글로벌국제선교교회연합>

퀸즈장로교회, 선교바자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각 선교회와 다민족 주관으로 6월10일(토) 오전 7:00부터 오후 7:00까지 본교회 지하친교실, 주차장에서 개최한다. ▲문의: 718-886-4040

뉴저지초대교회, 선교바자회

뉴저지초대교회(담임 박찬섭 목사)는 다음세대를 위한 선교바자회를 6월10일(토) 교육관 주차장에서 개최한다. 바자회 물품은 의류, 먹거리, Food Court 등이며 선교바자회 수익 전액은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다음세대 자녀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문의: 전승규 집사 201-906-4360

아름다운교회, 비전 장학생 선발

아름다운교회(담임 계재광 목사)는 2023년 비전 장학생 선발을 개최한다. 장학 금액은 \$3,000 (1회)이며, 신청자격은 미국 내 정규 신학교 재학 중인 full-time 신학교, 대학원, 학위과정 등록자이다. 접수는 6월 1일(목)부터 6월 26일(월) 까지이며 <https://www.arumdaunchurch.org/vision-scholarship-application/> 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arumdaunvision@gmail.com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34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는 34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6월5일(월) 오후 7시 퀸즈장로교회 본당에서 진행한다. 졸업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동영상으로도 제공된다.(Youtube:KAPCQ) ▲문의: 718-463-7163

2023 북미 원주민 단기선교 모집

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는 북미 원주민 단기선교 단원을 모집한다. 선교일시는 7월10일(월)부터 7월14일(금)까지이고, 장소는 Good Shepherd Church, 메인주이다. 참가회비는 \$350, 가족 참가시 \$300이다. 선교를 위한 훈련은 6월 4일부터 5주간 주일 오후 4시 뉴욕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된다. ▲문의: 917-514-0369

뉴욕센트럴교회, 음악시리즈 콘서트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는 음악시리즈 두 번째 콘서트 6월11일(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열린다. 룻기의 스토리를 내용으로 작곡된 칸타타, 솔로와 합창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음악회이다. ▲문의: 516-387-9940

네이버플러스, "후원의 밤"

네이버플러스는 6월4일(주일) 오후 6시에 필그림선교회(담임 양춘길 목사) 글로리홀에서 '이웃을 빛내는 음악의 밤'의 주제로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문의: 201-461-0909

뉴욕 웨스트체스터 지역교회 연합집회

뉴욕 웨스트체스터 지역교회 연합집회가 '믿음, 소망 사랑(고전 13:13)'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6월9일부터 11일까지 웨스트체스터 연합교회(담임 전구 목사)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유기성 목사(선한 목자교회 원로목사)이며, 연합집회 첫째 날은 6월9일 저녁 8시, 마 28:18-20 '믿음으로 사는 사람', 둘째 날은 6월10일 저녁 8시, 마 13:44 '소망으로 사는 사람', 셋

째 날은 6월11일 오후 5시, 요 13:34-35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6월11일 주일예배는 오전 8시, 11시30분으로 시 23:1-6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다. 장소는 50 Pintard Avenue, New Rochelle, NY 10801이며 914-738-3076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2023 VBS...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

찬양과 말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미 동부 각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Stellar", "Keepers of the Kingdom", "Twists & Turns"등 다양한 주제로 2023 VBS를 실시한다. VBS를 통해 믿지 않는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기회로 삼고, 찬양과 말씀을 배우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VBS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회별 2023년 VBS 일정은 다음과 같다. <홍현숙 기자>

교회	일정	주제	문의
뉴욕센트럴교회	6/28(수)~30(금)	Stellar"Shine Jesus' Light"	김혜환 전도사 720-503-9331
뉴욕효신장로교회	7/16(주)~8/6(주)매 주일	Stellar"Shine Jesus' Light"	718-321-1787
베이사이드장로교회	6/28(수)~30(금)	Keepers of the Kindom	718-229-0858
퀸즈장로교회	6/29(목)~7/1(토)	Stellar"Shine Jesus' Light"	718-886-4040
뉴저지초대교회	6/17(토)~7/1(토)	Stellar"Shine Jesus' Light"	201-767-0400
몽고메리교회	6/20(화)~24(토)	Stellar"Shine Jesus' Light"	심하영 전도사 610- 222-0691
빅스카운티장로교회	6/23(금)~25(일)	Twists & Turns	215-945-1512
영생장로교회	6/18(주)~21(수)	Stellar"Shine Jesus' Light"	215-542-0288
보스턴장로교회	6/27(화)~29(목)	Stellar"Shine Jesus' Light"	paulkim@bostonkorea.org
벤엘교회	6/28(수)~30(금)	Garden of Eden	410-461-1235
와싱턴중앙장로교회	6/19(월)~23(금)	God is With Me	hyun.woo@kcpc.org

제 4차 로잔대회...유기성목사 초청 언론사 간담회

“전 세계 영적 대각성의 도화선 되길”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 유기성 목사 초청 언론사 간담회가 5월 18일(목) 오전 11시, 공개홀에서 열렸다. 이영선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기자간담회에서 유기성 목사(위지엠 이사장, 전 선한목자교회 담임)는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에서 모이는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한국 교회 안에서 먼저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 전 세계 영적 대각성의 도화선이 되길 소망하며, 한국 교회의 회복과 갱신을 위한 도전 과제들을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기성 목사가 로잔대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 로잔대회는 2024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 유 목사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존 스토틀 목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시작

한 로잔대회가 50년이 되었다. 지금 우리는 선교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성경적 복음 전하는 선교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국제로잔대회는 빌리 그레이

엄과 존 스토틀은 영향력 있는 선교운동가, 목회자, 신학자, 사역자가 하나로 연합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며 하나님 선교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지난 50년 동안 세계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국로잔대회가 그동안의 대회와 다른 점은 국제로잔대회는 대회를 여는 한 나라의 준비위원들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한다. 그러나 이번 한국대회는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권으로 선교 중

심축이 옮겨가고 있으므로 한국교회 혼자만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이 준비위원회와 공동 호스트를 한다. 대회 운영과 관련된 내부적 신학적 논의, 선교적 논의는 국제로잔대회가 맡고, 외적 요소 곧 대회장소, 숙소, 식사, 방송, 자원봉사는 한국교회와 아시아권 교회들이 맡게된다. 금번 4차 로잔대회 성경은 사도행전이 기본 텍스트이다. 사도행전 전체를 본문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교회 주일 설교강단에서 선포될 공동강해설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대회기간 주제 강연이나 분과토의 등을 통해 사도행전이 말하는 선교를 연구하고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기를 바라시는지 중요한 이슈를 명확하게 고찰하고, 여러 나라 안에서 하나님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하는 선교프로젝트도 발표하게 된다. 유목사는 “서울 로잔대회 이후 세계선교는 더욱 다양한 방법과 강력한 형태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하며 “미주 한인교회들이 내년 9월 한국으로 단기선교를 와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복음방송이 실시한 퍼스트펄링 수여자들

미주복음방송 퍼스트펄링 지원금 수여

VYCC를 비롯, 10개 선교단체에 5천불씩 지원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이 실시하는 퍼스트펄링 지원금 수여식이 5월 18일(목) 오후에 실시됐다. 미주복음방송이 지난 3월 15일, 8시간 동안 진행된 나눔On캠페인 공개 모금 생방송에 방송 선교회원과 청취자 그리고 지역 교회들과 뜻깊은 마음과 정성이 모여 3월 31일 기준 집계된 총 후원금 193,146.92달러로, 이중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선단체들 중 10곳을 퍼스트펄링으로 선정, 각 단체에 사역지원금 5,000불씩 총 5만 불을 전달하게 됐다.

해 앞서 헌신하는 10개 자선단체로, 이번에 처음 퍼스트펄링으로 선정된 다민족 청소년 비영리단체 VYCC(Vision Youth Charity Center)는 2017년 설립되었다. 박민숙 대표는 “1) 북한에서 온 탈북민 난민, 특히 싱글맘이나 자녀들, 2)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3) 어려운 형편에 처한 가정이나 4) 다음 세대를 돕고 있다”며, 미주복음방송이 이들의 사역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다. 다음은 퍼스트펄링 지원금 수여식에서 5천불의 지원금을 받은 단체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푸른 초장의 집(대표: Victoria Hong), △Seesaw Communities Inc.(대표: Sam Yoon), △스코이노니아 선교회(대표: 박종희 목사), △방주교회(대표: 김영규 목사), △미주 밀알선교단(총단장: 최재후 목사), △LA One Church(담임: Pastor Chan Kwak), △살롬장애 인식교회(대표: 박모세 목사), △실로암선교미주후원회(회장: 이영취 장로), △CAL G.I.V.E FOUNDATION(대표: 허혜나), △VYCC(Vision Youth Charity Center 대표: 박민숙)

(박준호 기자)

이영선 목사는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미주복음방송이 선한 목자교회에서 하는 위드프로그래밍을 벤치마킹해서 나눔On이라는 모금 캠페인을 5년째 진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올해는 튀르키예를 돕는 일에 집중했다. 몇 년 전부터 지역사회를 돕고 있는 사역하는 단체들을 격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몇몇 단체들을 지원하게 됐는데, 올해로 4회째이다. 올해는 10곳에 총 5만 불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퍼스트펄링으로 선정된 단체들은 장애인, 노인, 편모가족, 노숙인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



주님의영광교회 부흥회에서 유재명 목사가 말씀을 전한 뒤 찬양인도하고 있다

주님의영광교회, 유재명 목사 초청 부흥집회

“문제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유재명 목사 초청 부흥집회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라는 주제로 5월 19일(금)부터 21일(주일)까지 열렸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신승훈 목사 사회로 시작된 19일(금) 오후 7시 30분에 열린 첫날 집회에서 유재명 목사는 ‘믿음이 주는 축복(창22:14)’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양과결집과 같다. 문제 앞에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때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 구원을 받고 천국백성이 된 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관계를 형성해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신다. 믿음을 물으시는 의도는 믿음의 질량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많은데 그것을 믿음에 담아서 주신다. 주님은 믿음을 물으실 때 삶으로 물으신다. 말도 안 되는 환경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믿음을 물으신다. 기독교 신앙이 힘든 것은 내수준이 아닌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라 말했다.

유 목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만약 믿음을 놓아버린다면 예서와 지옥에서 부자가 흘린 눈물과 같은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며 “어떤 형편에 있던지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목사는 “다니엘과 세 친구, 다윗의 공통점은 문제 앞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라며 “인생은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문제가 생기는 접점산중,

이날 말씀을 마치며 합심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21일(주일) 예배 1부와 2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의 영성(창 32:22-32)’, 3부 ‘이스라엘의 영성(창 33:1-11)’이라는 제목으로 유재명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한인신학교 2023 학위수여식

2023 학위수여식이 6월3일(토) 일제히 열린다. 시간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KAPC 개혁장로회대학: 오전 11시 대흥장로교회(김정훈 목사), △미주장신대: 오전 10시 홀러턴장로교회(황인철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오후 1시 동양선교교회(김지훈 목사)이며 △그레이스미션대학교는 6월5일 오후 7시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개혁장로회신학교 (310)749-0577, 미주장신대 (562)926-1023, 월드미션 (213)388-1000, 그레이스미션대 (714)525-0088

감사한인교회 부흥성회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는 ‘건너가 차지하라’라는 주제로 부흥성회를 6월2일(금)부터 4일(주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성회의 강사는 김문훈 목사(포도원교회)이며 일정은 금요일 저녁 7시30분, 토요일 새벽 5시45분, 저녁 7시30분, 주일 1-3부 예배시간이다.

▲ 문의: (714)521-0991

김윤진 간사 찬양간증집회

김윤진 간사(전 한성교회 예배인도자) 찬양간증집회가 6월2일(금) 오후 7시30분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 6월4일 오후 1시45분 새누리교회(손경일 목사), 6월7일(수) 오후 7시30분 토랜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213)749-4500, (650)210-0000, (310)618-2222

대흥장로교회 교회설립 부흥회 및 위임예배

대흥장로교회(담임 김정훈 목사)는 교회설립 46주년 기념 부흥회를 6월2일(금)부터 4일(주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백정우 목사(남가주동신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2일(금) 저녁 7시30분, 3일(토) 새벽 7시, 저녁 7시30분, 4일(주일) 1,2부 예배이다. 또한 4일(주일) 오후 2시에는 위임예배를 갖는다.

▲ 문의: (310)719-2244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김성주 아나운서 초청 간증집회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한의준 목사)는 창립 120주년 기념 김성주 아나운서 초청 간증집회를 6월4일(주일) 오후 7시에 갖는다.

▲ 문의: (808)536-7244

달라스중앙감리교회 2023 VBS

달라스중앙감리교회(담임 이성철 목사) 2023 VBS가 유치부와 초등부 대상으로 ‘Stellar-Shine Jesus’ Light’라는 주제로 6월1일(목)부터 3일(토)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3시에 열린다.

▲ 문의: (682)372-8048, (469)323-0605



은혜한인교회 41주년 기념부흥회에서 이승희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은혜한인교회 창립 41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만 초청되면 채움의 은혜 입을 것”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창립 41주년 기념예배가 5월 21일(주일) 오전 11시30분에 성광리에 열렸다.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과 한기홍 목사 인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박순성 장로가 기도했으며 은혜성 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이승희 목사가(대구 반야월교회 담임)가 ‘축복이 채워지다(룻2:8-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승희 목사는 “룻기는 절망의 이야기가 희망의 이야기로 바뀌는 것, 그리고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 등 반전의 드라마가 담겨있다”며 “우리의 인생에 각종 흉년을 만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죽음 같은 절망의 밤을 지날 때가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절망을 떠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가 룻기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본문 2장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타난다. 전능하신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결과 응답이 따라 온다”며 “첫째 하나님이 보호하심은 축복 신앙인의 자

리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다. 둘째 위로하심은 축복이다. 셋째 채워주심은 복이다. 하나님은 충만한 채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했다. 또한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 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만 초청되고 등장하면 그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충만한 채움으로 우리를 복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신뢰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한기홍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예배 중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비롯 2023년 신임제직명단을 발표했다. 제직명단은 장로(3명), 피택장로(4명), 협동장로(1명), 안수집사(15명), 명예안수집사(1명), 협동안수집사(4명), 권사(18명), 명예권사(5명), 협동권사(1명), 서리집사(145명) 등이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 제10차 치매돌봄교육 개최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에서는 지난 5월 23일(화) 사이프러스에 있는 소망소사이어티 소망홀에서 OC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치매돌봄교육을 진행했다. 현재 OC 소망케어교실에서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에는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법에 대해 강의하며 봉사자들이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을 돌보며 맞닥뜨릴 수 있는 일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박줄리 교육부장은 현재 OC 소망케어교실에서 한달에 한번 진행하는 소망치매가족 지원모임의 리더로서 소망케어교실 및 가족지원모임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소망소사이어티의 유분자 사장은 인사말에서 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와 소망케어교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혜원 사무총장은 치매돌봄 교육의 목표와 치매를 바로알고 치매환자 중심의 소통 및 치매환자 행동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이에 대한 문의는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somang@somangsociety.org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소망소사이어티가 개최한 봉사자들을 위한 치매돌봄교육 참석자들



'쉼터' 가 되어준 관 한인교회... "당연한 일을 했을 뿐"

태풍 '마와르' 휴양섬 곁 강타해, 현지 한인교회 '임시대피소' 마련

초강력 태풍으로 우리 국민 3400명의 발이 묶였던 관에서 현지 한인교회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성경 속 환대의 정신을 몸소 선보인 주인공은 관 시온성교회 오묘한 목사님이다. 예배당을 개방하고 방문객에게 쉼터를 제공한 이들은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오 목사는 "시온성교회의 전기와 수도 복구가 비교적 빨라 한국 영사관 지원 요청 전에도 도움이 나설 수 있었다"며 "교회와 고통 받는 이들의 집을 나눠서 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시속 240k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마와르는 지난 24~25일 관에 상륙하며 전신주를 대거 쓰러트려 단전을 일으켰다. 상하수도 가동 역시 중단됐고 국제공항 운영에도 제동이 걸렸다. 그 때문에 한인 관광객 3400여명이 관에 발이 묶여 무더위 속에서 난민 생활을 했다.

한인교회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을 접하고 쉼터 역할을 자청했다. 시온성교회는 지난 27일부터 전기가 들어오는 본당과 1층 청년부실 및 3층 유아실을 개편했다. 교회 측은 250~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침구

류 및 식료품을 마련했다. 오 목사는 "교인들과 함께 3교대로 돌아가면서 교민들을 지원했다"면서 "일부 성도는 청소를 맡았고 나머지 분들은 손님을 맞이하거나 물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도움은 십시일반으로 이어졌다. 아이들이 열이 나자 한인 관광객들은 타이레놀을 나누며 서로를 돌봤다. 관 정부 관광청과 한국 영사관의 물품 지원도 있었다. 오 목사는 "괌은 5월 평균기온 29℃로 무더운 지역"이라며 "몇몇 아이들은 땀띠가 생겨났는데 교회 공간 안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게 한 것만으로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교회의 돌봄을 맞은 이들은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오 목사는 "다음 달 초에 결혼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울면서 감사하다고 말씀했다"면서 "교회가 당연한 일을 한 것이고 여러분을 섬길 수 있어 우리가 감사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괌의 교민 가운데 거주하는 곳이 사라진 분들도 계시는데 조속히 복구되길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5년간 현지에서 사역 중인 이 목사에 따르면 관의 한인교회는 12곳으로 알려졌다.



중·고교 하나씩 남은 울릉도, 교회가 장학금 쾌척

부활절 연합예배 헌금 429만원에 후원금 보태 500만원 마련

헌금 전액을 장학금에 썼다. 울릉군기독교연합회(울기연·회장 김신일 목사)는 27일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남한권 울릉군수)에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강기연은 이번 장학금을 지난달 9일 있었던 부활절 연합예배 헌금으로 마련했다. 이날 모인 헌금은 429만2000원. 강기연은 여기에 후원금을 보태 500만원을 채웠다.

헌금을 장학금으로 사용하면 교육에 열악한 울릉도 교육 여건이 있다. 울릉도에 있는 초등학교는 4곳, 중·고등학교는 사동의 울릉중학교, 저동의 울릉고등학교가 전부다. 울릉도 학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배경이다. 울릉군청에 따르면 2000년 1337명이었던 초·중고 학생은 현재 425명으로 약 70% 급감했다.

고남하 울릉군청 교육인구정책팀장은 3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장학금은 교육 환경 개선에 쓰일 것"이라며 "외부강사를 초빙해 임시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신일 울기연 회장은 "학비 문제 때문에 공부 못 하는 학생이 울릉도에는 없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을 위해 헌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울기연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20개 교회 300명 성도가 참석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장로교와 침례교, 감리교 교회 35곳이 울기연에 소속돼 있다.



국내외 5만명에 현장서 직접 익히는 제자훈련 노하우 전수

'제자훈련' 분야 수상 사랑의교회 국제제자훈련원원 CAL세미나

'평신도를 깨운다'는 가치 아래 1986년 출범한 사랑의교회 국제제자훈련원(훈련원·원장 오정현 목사)이 올해 설립 37주년을 맞았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제자훈련 세미나로 자리매김한 훈련원원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CAL세미나)도 120기·121기(미주 지역)까지 마쳤다. 그동안 국내에서만 2만 2169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해외에서는 대만에서 118명이 수료한 걸 비롯해 미주 지역에서 2668명, 일본 521명, 브라질 1672명 등 모두 2만7000여 명이 CAL세미나의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CAL세미나는 1999년 결성된 '제자훈련 목회자 네트워크

크'(CAL-NET)를 통해 한국과 세계 각국의 교회로 확산했다. 무엇보다 세미나를 통해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는 목회자들이 각 지역과 국가에서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제자훈련 2.0시대를 열고 있다. CAL세미나의 주제강의는 '온전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4년 처음 시작한 온전론 강의의 통해 오정현 목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제자의 삶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전하는 동시에 제자훈련 교회가 왜 '제자훈련 선교교회'로 변모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귀납적 소그룹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한 소그룹 인도법도

세미나의 근간을 이룬다. 소그룹 인도법에서는 소그룹 운영 이론과 함께 실제 소그룹을 지도하기 위한 방법론을 소개한다. 소그룹의 환경과 성격, 소그룹과 리더십을 비롯해 귀납적 개인성경연구·귀납적 소그룹 성경연구 등의 강의를 통해 성도를 온전히 변화시키기 위한 최적의 소그룹 인도법을 전수한다.

제자훈련 현장참관과 실습은 CAL세미나의 강점 중 하나다. 국내외 여타 세미나와 가장 큰 차별점을 둔 것도 바로 현장실습이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실제 운영되는 순경반과 제자반, 다락방 소그룹에 참여해 참관과 실습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제자훈련 목회자 네트워크'와도 지역별 모임을 진행하며 제자훈련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받는 시간도 마련된다.

CAL세미나 실무 총괄하는 박주성 목사는 30일 "121기까지 진행된 CAL세미나를 통해 하나 님께서 한국과 세계 교회를 위해 적지 않은 수의 온전한 제자를 세우셨다"면서 "제자훈련 2.0시대를 맞아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위해 헌신한 발걸음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기를 기대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엔데믹 시대 분열된 교회는 하나 됨 지향하자"

한국교회총연합,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협력기관 초청 간담회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이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협력기관 초청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월드비전·기아대책·한국교회봉사단·세계성서화운동본부·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

회·한국교회법학회·한국세계선교협의회 등 한교총과 협력하는 15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교단이 다 달랐지만, 한마음으

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협력했다"면서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에는 300개가 넘는 교단이 있을 정도로 분열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회장은 "이제라도 한교총을 중심으로 나누어진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전도 사명 완수는 물론이고 저출산 극복과 동성애 문제 해결, 생태계 파괴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함께 하자"고 권했다. 이 대표회장은 "한국 교회가 사랑의 종교, 신뢰받는 종교로 거듭나는 일에 여러분이 협조해 달라. 함께 하자"고 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력기관 대표들은 각 단체의 사역을 소개하며 한교총과의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김철훈 한국교회봉사단 사무총장은 "한교총과 협력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복구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 지진 피해 현장에 커뮤니티 센터를 짓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12일간 기도 축제, 성령의 단비 침례교회에 내리길"

라이즈 업 뱍티스트, 29일 전국침례교회 연합기도회 개막

말씀과 기도 축제인 '2023 전국침례교회 연합기도회-라이즈 업 뱍티스트'가 29일 저녁 경기도 안성 함께하는교회(김인환 목사)에서 개회됐다. 오는 9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12일간 진행되는 연합기도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총회장 김인환 목사)와 다음세대부흥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다.

유튜브 채널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에서 생중계되는 기도회는 함께하는교회를 시작으로 대구중앙교회 이리교회 진해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등에서 열린다.

주강사는 김인환 총회장을 비롯해 김종성(부산교회) 강신정(논산한빛교회) 강대원(진해교회) 최병락(강남중앙교회) 여주봉(포도나무교회) 목사 등이다. 박해정 집사(미르테 바이헤정 대표), 김민석 형제(포도나무교회), 이준희 안수집사(얼라이브 커뮤니티 대표)는 간증할 예정이다.

첫날 기도회는 함께하는교회 드림찬양단의 찬양으로 시작했다. 참석자들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부르짖었다.

김 총회장은 "올해로 3년째 맞이하는 라이즈업 뱍티스트에서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 숨 쉬는 은혜의 현상이 될 것"이라며 "다음세대가 무너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12일간 성령의 단비가 3500여개 침례교회에 쏟아져 내리길 기대한다. 다음세대를



"로잔대회 성공 이끌자" ...선교계 힘모은다

KWMA-한국로잔, 30일 업무 협약 체결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KWMA·이사장 이규현 목사)와 한국로잔이 제4차 로잔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단체의 업무 협약 체결식이 30일 서울시 동작구 KWMA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서 KWMA 이사장 이규현 목사와 한국로잔 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양해각서에서 서명하

고 교환했다. 양 단체는 2024년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로잔대회를 통해 '로잔연약'이 한국교회에 잘 알려지도록 노력할 것과 대회 진행을 위한 국내외 선교 발원터에 동원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협약서에 담겼다.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 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ission 선교의 창 (216)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창조원리를 위협하는 한국인의 출산율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옛날 가정은 3대가 같이 산 대가족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 시대이다. 가정 안에 구성원이 별로 없다. 현대는 가정 파괴 현상이 범람하며 독신주의, 동성애 등 시대적 결혼관이 진보적으로 변하고 있다. 청년들의 혼인 연령도 30대 이후로 늦춰 가고 있다. 설사 저들이 결혼을 한다 해도 자녀를 안 갖거나 1명 정도로 족하는 분위기이다. 그 결과로서 학교와 교회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 많은 학교들이 아예 없어지거나 통폐합되었다. 교회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이다. 인구 절벽에 대한 공통된 문제는 한국을 비롯하여 주로 기독교 배경의 선진국들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제와 문화가 발달할수록 절대 진리보다는 자아가 중심이 되는 이기적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 차원의 계몽과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교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교회가 영혼 구원과 부흥에만 몰두하고 저출산 같은 사회적 쟁점(Issue)을 소홀히 할 때 국가와 민족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면 교회는 설 자리를 잃게 되며 중국적으로 선교사명도 감당할 수 없다.

1. 출산에 대한 성경적 원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에게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창 1:28)고 말씀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문화명령이다. 이 명령은 인간이 시대를 초월해서 지켜야 할 보편적 절대가치이

100년 역사를 가진 청운초등 학교는 한국 전라북도 임실군 청운면에 있다. 본 학교는 1980년대에 한 학년이 6반까지 있었다. 각 반에는 학생들이 55~60명 정도였다. 당시 6학년까지 전

다. 이에 대해 김희석 교수(총신대)는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출생의 행위가 단순한 숫자적인 번성이 아니라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결혼과 출산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주님의 구원 역사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출산이 불행의 씨앗이 아니라 큰 축복의 산실이라고 말씀한다. “자식은 여호와와 그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시 127:3-5a).

2. 저출산 현상에 대한 한 사례

교생을 합산하면 2천 명이 넘었다. 현재는 어떠한가? 2022년도 통계에 의하면 전체 학생 수가 총 28명이었다. 이 숫자는 이전 한 반의 학생 수보다 적은 것이다. 어떻게 40년 만에 1/10 수준으로 학생들이 줄어들 수 있단 말인가?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현상이 청운 학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한국 대부분의 시골 학교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0.84명) 대비 0.03명 감소(-3.6%)한 수치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이처럼 작금의 한국의 출산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독 한국만이 1.0명에도 미치지 못한 출산율이다. 이 통계 수치는 해외에서 살고있는 한인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3. 출산율이 저조한 주된 원인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국민 절반은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65.3%에 그쳐 2020년 조사보다 2.7%p 감소했다. 이처럼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결혼관과 자녀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이다. 특별히 신세대 청년들 중 상당수는 자기 인생이 누군가에게 예측되거나 희생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 한 예로 인생을 즐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인 '딥크족'(DOUBLE INCOME NO

문화명령이다. 둘째, 출산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축복이다. 셋째, 출산은 하나님 나라 통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넷째, 아기의 출생은 살롬 - 부흥의 시작이다. 이 부르심과 이 소명 앞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순종하며 응답하고자 한다. 출산 장려 사명은 1) 오직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개혁신학운동이자 말씀실천 운동이다. 2) 시대적 사회 문제를 창조적 세계관 운동이다. 3) 결혼과 출산을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이다. 4)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생명 존중 및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세움 운동이다. 5) 선대의 정통신앙을 후대에 계승할 토대를 마련하는 신앙전수 운동이다. 6)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운동이다.

5. 저 출산율에 대한 다각적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 및 단축근무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국가의 역할이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캠페인을 펼치면서 당사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테면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결혼 및 출산과 양육비 보조 등 좀 더 과감하고 입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맺음 말

저출산 문제는 전쟁이나 재난만큼 위중한 것이다. 이는 국가뿐 아니라 교회의 존망을 뒤흔들게 된다. 미국 인류학자 폴 휴잇 박사(Paul S. Hewitt)는 “한국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하지 못하면 2100년에 인구의 1/3 이하로 줄고 2200년에는 1백40만 명으로 지구에서 한국인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

현재 전 세계 인구는 약 80억이다 대부분 기독교 배경의 선진국들은 인구절벽 앞에서 있다 교회는 창조원리 차원에서 인구출산을 독려하며 제도해야 한다

KIDS)과 자유로운 생활을 갈망하는 싱글로 살아가는 '비혼(非婚)족'이 늘어나고 있다. 이 밖에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미국의 CNN방송에서는 4가지를 지적했다. 그것은 1) 높은 부동산 가격과 교육비 및 점증하는 경제적 불안 요인 2) 이성애·결혼제도 외부에 있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 3) 여성의 희생을 강제하는 가부장적 가족문화 4)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렵게 만드는 노동문화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지적을 우리는 뼈아프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4. 저 출산 극복을 위한 개혁주의 신학포럼 선언문 일부

첫째, 출산은 하나님 나라의

대책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결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첫째, 교회의 역할이다. 교회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며 문화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야 한다. 나아가 교회가 담을 열고 좋은 보육 환경과 낮은 보육료 책정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 둘째, 기업과 사회단체의 역할이다. '블라인드 채용 전문가'로 알려진 어느 취업 컨설턴트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면 결혼도 빨리하고 자연스럽게 출산도 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은 육아 지원금 제도와 사내 어린이집을 만들고, 자유로운 출·퇴근을 할

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그간 정부나 유관 단체들은 이 문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전개해왔다. 그러함에도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인다. 이유인즉 외형적 계몽이나 재정적 도움으로는 한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보수적 가치인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오지 않는 한 근본 해결책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교회가 나서야 한다. 일천만 기독교인들만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 이을 자를 준비한다는 자세로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이 사명은 창조원리에 인간을 회귀시키는 구속사적 사역의 일환이다. 넓은 의미에서 수직적 선교라 할 수 있다.
jrsong007@hanmail.net

C. S. 루이스의 생애 산책 (3)

군대 경험과 새가족

C. S. 루이스는 많은 사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루이스가 인문학자로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커크패트릭 선생입니다. 커크패트릭은 루이스의 대학입시를 지도한 개인 교사였습니다. 그는 루이스를 철저하게 논리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가 고전어를 익히고 유럽의 언어를 익히게 하였습니다. 반면에 커크패트릭 선생을 통해서 루이스는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그가 조지 맥도날드(George MacDonald)의 저서들을 발견했습니다. 루이스가 커크패트릭 선생과 공부하는 동안 책진열대에서 우연히 <판타스테스(Phantastes: A Faerie Romance)>란 책을 발견하고 무심코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날 밤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그의 평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몇 시간 후에 나는 아주 중대한 경계선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이미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나 러스킨(Ruskin)같은 19세기 작가들의 로맨틱한 상상력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판타스테스>에서 ‘새로운 양질’(new quality)인 ‘영적 신비감(Numinous)’으로 한층 풍성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판타스테스>에 널리 배어있는 것은 그가 후에 ‘성결함’이라고 인정한 “밝은 그늘(Bright shadow)”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의 상상력을 바꾸어 주었고, 그는 상상력에 세례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은 루이스의 생애와 작품에 가장 중심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루이스는 커크패트릭 선생의 도움으로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년 정도 대학생활을 즐기던 그는 1차 대전이 프랑스지역 전투에 참전하였습니다. 그는 전쟁경험이 그의 삶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호 속에서 살아남은 대다수 군인처럼 루이스도 전

쟁 경험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듯합니다. 1939년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난 전쟁 때의 기억들이 오랫동안 꿈속에 나타나 괴롭히곤 했다”라고 썼습니다. 전쟁경험이 C. S. 루이스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군 복무로 그 후 30년 동안이나 그에게 영향을 끼쳤던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루이스는 훈련소에서 만난 동기 패디 무어(Paddy Moor)와의 특별한 사연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상대의 부모님을 돌보자는 언약을 했습니다.

패디 무어는 전투에서 전사했고 루이스는 패디 무어와 맺은 언약을 굳게 지켰습니다. 1917년 6월 루이스는 아이리쉬 출신의 군대 동기 패디 무어(Paddy Moor)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후 루이스는 자주 패디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패디 무어와 C. S. 루이스는 두 사람 중에 누가 전사하건 살아남은 자가 유가족을

돌보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패디 무어는 1928년 3월 24일 전사했습니다. 전사한 패디 무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의 어머니 재니 무어(Janie Moore)와 패디의 여동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거처할 집을 마련해 주었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루이스는 재니 무어(Janie Moor) 여사를 양 어머니로 삼고 평생 돌보았습니다.

혹자는 루이스가 한때 그녀에게 로맨틱한 감정을 갖기도 하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쩌면(회심하기 전에) 루이스가 그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사실 C.S 루이스와 재니 무어 부인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관계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렀고 그녀가 죽기까지 그녀를 한결같이 보살폈습니다.

루이스는 최선을 다해 무어 부인을 돌보았지만 무어 부인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은 루이스와는 아주 다른 사람이었고, 성품이 까다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어 부인은 루이스가 같이 살기에는 쉽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주장이 강하고, 요구사항이 많았으며 남을 지배하려고 하였고 막무가내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교육도 별로 받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크리스천도 아니었으며 심지어 루이스가 크리스천 되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루이스가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자기는 소외되었다고 느끼고 신앙생활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무어 부인은 루이스의 신앙생활을 반대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좋은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여인이었습니다. 나아가 무어 부인은 인심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 집은 친구들과 필요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사람이었

습니다. 무어 부인의 이런 따뜻한 성품이 루이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루이스는 아버지와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무어 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정서적 안정을 얻게 되었고, 그녀와 함께 살면서 루이스는 소외와 고독에 빠져드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무어 부인과의 친숙한 관계를 통해 루이스는 밝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루이스와 아버지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중에 제1차 세계대전에 중위로 참전했던 루이스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엉덩이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당해 야전병원을 거쳐 후방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루이스는 맘이 불안했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병원 면회를 와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상과 외로운 병원 생활은 루이스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아버지와 관계에 치명적 단절이 왔고 무어 부인과 관계는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눈치를 보았던 불신앙의 길을 확실하게 끊었습니다. 루이스 불신 생활은 점점으로 치달았고 아버지가 불효함으로 회개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Kangtg1207@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죄에서 해방되려면 (롬7:21-23) 찬 213장

바울은 더 실제적인 일을 말하며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보여줍니다. 첫째, 죄란 부패성이 지배함을 가리킵니다. (21) 무질서, 어둠, 혼란, 공허 같은 것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은 온갖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에 결코 이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법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방될 수가 없기에 바울은 탄식했습니다. 둘째, 그러나 성령이 지배하는 삶 또한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선을 행하

려는 욕구와 죄의 법을 이기게 하는 더 강한 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법을 주장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승리로 나가게 합니다. (23) 셋째, 영적 전쟁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23)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내 속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므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화 죄에서 벗어나려면 (롬7:24-25) 찬 187장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관건은 일상생활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일입니다. 바울의 개별적인 체험은 죄를 이기는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탄식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정상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실상을 밝히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저히 이를 수 없는 죄인임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 예수님이 마련하신 공로만이 자유할 수 있음을 알게됩니다. (25) 비참한 자신의 모든 원인들을 죽임으로 처리하신 그

리스도의 공로를 바라보고 사모하게 된 바울은 이런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랑하고 의지한 십자가 복음입니다. (고전 2:2) 셋째,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는 것이 관건입니다. (25) 바울은 그 사실을 발견함과 함께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 주장합니다. 보는 것은 곧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죄를 이깁니다.

수 생명의 성령의 법 (롬8:1-4) 찬 177장

바울은 이런 갈등에서 자유하는 길은 오직 성령의 법을 따름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죄의 법을 따르면 영적 사망 곧 일시적인 단절 상태에 떨어 집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법칙이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의 법을 따를 때 승리합니다. (1-4) 육을 이기게 하려고 주신 성령의 내주

하심은 죄로부터의 보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죄의 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성령을 좇아 그 생명을 즐기는 길뿐입니다. 그러나 육의 부패성의 교묘함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목 율법의 요구를 성취함 (롬8:4) 찬 405장

율법과 복음의 갈등은 항상 신자의 큰 관심이었습니다. 사도는 본론에서 그 갈등을 해결합니다. 첫째,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뜻을 가리킨 율법의 표준은 신자가 성취할 목표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문제이지 그 표준은 귀한 것입니다. 둘째, 이 요구는 성령을 따를 때 이

루어집니다. 이는 성령이 그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 연합함을 도우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창조 때 혼돈과 공허한 어둠을 위에 운행하심으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신 그 영은 육의 부패성을 다스리심으로 기어코 그 표준에 이르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겸손히 따릅니다.

금 영과 육의 싸움 (롬8:5-8) 찬 393장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시작되는 영육의 싸움은 무덤에 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싸움은 가나안 7족속처럼 영적 성장을 위해 허락된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 먼저 이 영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 영혼이고, 육은 모든 죄를 만드는 생산공장 같은 부패성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다툼은 시도 때도 없이 기회만 되면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겐세마네 동산에서 주

님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지적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동정하기 위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는 육의 부패성을 보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고 성령의 생각을 택할 때 육의 생각을 이깁니다. 그것은 결국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함으로 이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붙들어 맵시다.

토 그리스도의 사람 (롬8:9-11) 찬 518장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는 이 사실을 외적인데 두지 않고 내적인 곳에서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품으시고 치료하시고 채우시는 성령이 항상 불드시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시에 그는 재창조된 구속의 영이십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나타나 인도하신 그 분이 내 속에서 일하심은 놀라운 일입니다. 둘째, 그는 성령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여 그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먹으나 마시나 모든 일을 신령한 것으로 바꾸어 그 풍성한 부요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셋째, 육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신자의 골치거리인 육의 부패성은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장사된 바 되었습니다. (갈 2:20 롬 6:6) 육체의 소욕이 이미 정리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거룩을 위하여 믿음으로 싸워 신령한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신령한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독교교육 (28)

기독교교육과 사역팀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상임사역팀의 또 다른 예는 교회교육사역팀입니다. 교회교육사역팀의 중요한 역할은 교회의 교육적 필요를 파악하고 여러 프로그램의 교육사역팀을 통해 그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할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교회교육사역팀은 교회의 교과과정에 통일성을 부여합니다. 주일학교와 제자훈련 등 여러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이 통일성 없이 흩어져 있는 교회가 많습니 다. 유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의 교과과정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교회교육사역팀은 통일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기관이 같은 교과과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회교육사역팀은 교회교육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주요 사역자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큰 영향을 받아 방향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교회교육사역팀이 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한다면 적합한 방향을 제시하여 교육사역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셋째, 교회교육사역팀은 교육사역 전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교회교육사역팀의 세가지 역할은 다음과 같이 12가지의 임무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 회중이 교육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돕기
- 교회가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기
- 교회가 교육의 필요를 발견하도록 유도하기
- 교회의 목표와 필요에 관한 전략과 사역 개발하기
- 전략과 사역 집행하기
- 교회의 교과과정 계획 수립하기
- 교육봉사자 모집과 훈련하기
- 교육봉사자 감독하기
- 교육사역에 필요한 재정 관리하기
- 공간과 장비 배정하기
- 가정생활교육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 교육사역에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하기

교회교육사역팀이 임무를 잘 감당하려면 신학적 그리고 교육적으로 자격과 경험을 겸비한 교육목회자가 사역팀을 이끌어야 합니다. 교육목회자는 담임목회자와 더불어 목회팀을 이루며 교회교육의 전반적인 책임을 감당합니다. 교회 교과과정과 교육이 통일성과 일관성이 없는 것은 교회교육을 포괄적으로 살피고 돌보는 교육목회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목회자는 교육사역팀의 협력을 통해 교회의 전반적인 교육을 이끌어 교회가 건강과 성장에 크게 기여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교회 내에서 교육목회자의 위치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목회자는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의 산업화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직책과 절차의 표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도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교육목회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교육목회자는 교육사역과 함께 행정을 전담함으로써 담임목회자의 업무량을 줄여주었고, 담임목회자와 협력하여 교회교육을 책임졌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교육목회자는 고도의 전문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그 중요성이 희석되어 교

육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초창기 교육목회자는 어린이, 학생, 그리고 성인을 포함한 주일학교와 전도에 필요한 방대한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교회 구성원들의 삶이 복잡해짐에 따라 주일학교와 전도 프로그램들이 총칭으로 다양해지고, 교육목회자가 감당하던 사역이 유치부사역자, 초등부사역자, 중등부사역자, 가정사역자, 제자훈련사역자 등으로 분산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목회자의 위치와 역할이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모든 연령층을 위한 주일학교로 잘 알려졌던 남침례교단의 교회교육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침례교단은 1900년대 초중반에 주일학교를 통해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1900년 160만 명이 조금 넘었던 교단이 2000년에는 1,600만 명이 넘는 교단으로 성장했습니다. 후자는 1900년 초중반의 기간을 주일학교를 통한 교회성장의 전성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1900년대 후반 보수주의 회복운동과 함께 설교를 강조하는 움직임이 생겨나면서 주일학교를 이끄는 교육목회자의 위치와 역할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 내외적인 변화와 이유로 교육목회자와 주일학교가 흔들리게 되고 교회교육이 통일성과 일관성을 잃게 된 것입니다. 통일성과 일관성은 교회교육을 가정생활로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즉,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학습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교회교육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회복하기 위해 교육목회자가 교회교육사역팀을 인도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교회교육사역팀은 적합한 구성원을 필요로 합니다. 구성원은 교육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교육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일학교, 제자훈련, 여성교회, 남침교회 등 여러 교육기관의 대표들이 구성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회중이 구성원의 일부를 선정합니다.

교회교육사역팀의 구성원들은 각자 교회교육 프로그램의 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교회교육사역팀 회의 시간에 자신들이 담당하는 교육사역팀의 필요에 관련된 보고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회교육사역팀의 모든 구성원들이 교회교육 프로그램 전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 프로그램 관련자들의 추천이 받아들여지면 구성원 각자가 해야 할 일을 배당받게 됩니다. 또는 구성원들이 소그룹을 이루어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구성원이나 소그룹은 수시로 교회교육사역팀에 자신들의 활동을 보고합니다. 교회교육사역팀은 정기적으로 교회 전체에 보고를 하여 교회교육에 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교회교육사역팀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성경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조직하는 상임사역팀입니다. 성경적인 목표를 정한 후 교회의 교육적인 필요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필요를 채우기 위한 전략과 사역을 설계합니다. 또한 행정적인 절차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교회가 교육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킹장 완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 편지

캄보디아

1. 예배사역

1) 어린이 예배

4월은 캄보디아의 일 년 중 에서 가장 더운 달입니다. 낮 온도가 섭씨 40도까지 올라가 서 체감온도는 섭씨 45도가 되 어서 한낮에는 야외에서 숨을 쉴 때 허벅거리게 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내 릴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없는 2층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옷이 땀에 흠뻑 젖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동안에는 아래의 이유로 1층의 유치원실에서 에어컨을 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3월 말일에 시엠립에 폭풍을 동반한 폭우 가 쏟아졌습니다. 대로변의 간판이 떨어지고 날아다니 몇몇 사망자가 나오기까지 했던 전례 없는 폭풍우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벤엘교회 건물지붕에서 물이 새어 2층 예배실의 천정이 빗물에 젖어 내려앉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보고서 마지막 항목에 사진과 보고드림). 그 결과, 예배실에서 예배를 당분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1층의 유치원실에서 주일 어린이예배와 청소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 청소년예배

시엠립에 새롭게 선교사로 오신 두 가정의 저희 벤엘교회의 청소년예배에 대해 들으시고,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사역하는 교회 가운데 청소년들을 중점적으로 선교하고 예배공동체로 세워가는 곳은 아직 시엠립에 흔하지 않습니다. 대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예배사역을 진행하거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곳은 구제사역(쌀과 기타 구제품을 나누는 사역) 중심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 청소년들과 예배하는 공동체가 없어서, 우리 벤엘교회의 예배를 다른 선교사에게 들으시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예배에 참석하신 두 새로운 선교사 가정의 청소년들의 예배에 놀라고, 또 도전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의 훈련된 찬양인도, 청소년들

2. 금요청소년 모임

4월은 캄보디아의 가장 큰 두 명절 중 하나인 신년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모든 공립학교는 1~2주의 방학을 하고 다시 개학을 하는데, 올해는 정부에서 모든 공립학교를 4월 초부터 5월 20일까지 방학기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4월달의 캄보디아력 신년과 5월 4일부터 18일까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진행되는 '동남아시아게임'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는 학생들로 인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학생들이 경기장의 응원단으로 동원하기 위한 방학입니다. 시엠립의 사립학교는 재량에 따라 진행할 수 있고, 벤엘교회는 학비를 받아야 하는 이유로 정부의 시책과 상관없이 매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의 청소년모임시간은 청소년들을 예배로 인도하고 권면하는 시간이어서, 금요일모임은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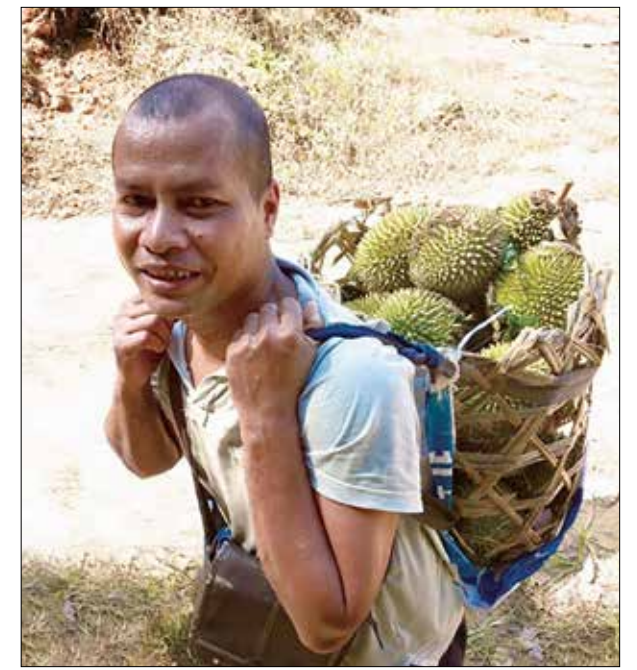
3. 예배실 천정 수리 요청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3월 말에 전례 없는 폭풍우가 시엠립에 내리면서, 지붕에서 빗물이 새어 천정보드가 젖거나 예배실의 천정보드가 내려앉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배실 사용을 중지하였으며, 예배실에서 사용하던 초등 영어 과정 교실도 합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난 4월 캄보디아 선교보고입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는 담임목사님, 해외선교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일훈, 박수영 선교사 드림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말레이시아

▲ 종족명
SEA 종족

▲ 인구
약 58,000명

▲ 종교
토속종교(주술), 이슬람, 기독교 6%

▲ 기타
42개의 방언이 있음, 구전 문화, 성인 중 일부 문맹

▲ 프로젝트 소개
2003년 여러 SEA 교단의 지도자들, M국 기독교인들, 선교사들이 모여 SEA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SEA 종족 교단 연합인 BKNS가 태동하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 프로젝트 진행
신약 성경을 완역, 2023년 가을 출판을 목표로 점검 중이다. 문해 사역팀은 SEA어 온라인 사전을 제작, 배포하였고 철자법 강의를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으며 향후 계속 읽기 자료를 만들 예정이다. 성경 활동팀은 여러 마을에서 SEA어 성경 읽기 모임을 촉진하기 위해 활발히 사역 중이다.

▲ 기도제목
1. 성경 읽기 모임이 SEA 종족 교회에 불같이 일어나 출간된 성경이 활발히 사용되고, 특히 목회자들이 성경 읽기에 헌신하여 목회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도록
2. SEA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 SEA 종족 교회가 이제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며, 부흥이 일어나 도록 성경을 바탕으로 오디오 성경도 제작하여 성경 읽기 운동에 활력을 더하기를 바라고 있다.

(GBT 성경번역선교회)



갈보라성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650) 579-7576, Fax: (702) 257-99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일성경공부: 기도회: 오후 6:00 다민족찬양: 매주(목)오후 4:00-7:00 Tel: (773) 802-1112, estroso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8:00 매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 945-1512, Fax: (215) 945-2085 1550 Woodbourne St, Levittown, PA 1906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찬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ctt City, MD 21042	보스탄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5:30 금요일찬양: 오후 8:00 유치, 유년, 종교동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새생명안인교회 담임목사: 정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E M 예 배: 오전 7:00(목) 세 벽 예 배: 오전 6:00(화/목/토) 구 역 예 배: 각 구역별로 한 국 교 회: 오전 10:20(주일) Tel: (702) 423-9700, Cel: (213) 703-99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	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전 7:00(목)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Tel: (703) 681-9235, www.koreanp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	일산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 820-9049, www.jej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델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아 예 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arn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찬양: 오후 8:00 수요찬양: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 635-1842(H), (254) 601-48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 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536-6675, www.tacomap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인/터/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충만한 예배, 충만한 축제, 충만한 위로, 충만한 계승”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7회 총회가 5월23일부터 26일까지 뉴욕 라과디아 프라자 호텔에서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

롭게 진행됐다. 이번 총회를 통해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김성국 목사를 만나 총회를 마친 소감과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보았다.

▲제47회 총회장으로 당선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교단의 총회장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 총대들이 이 직분을 맡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

만"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 까지 교단의 모든 각 교회들이 예수로 더욱 충만해지길 바라며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충만한 예배, 충만한 축제, 충만한 위로, 충만한 계승을 통해 온 교회들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건실히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개혁주의 신

▲이번 총회를 준비하면서

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총회인데 결국 목사님, 장로님들과 사모님들이 모두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뜨거워지길 바라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회를 방문하신 많은 사모님들께서 큰 위로를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여

고자 노력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무엇인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다민족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감당해 왔습니다. 특별히 뉴욕이라는 곳의 특수성은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족속



김성국 목사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계승 위에 세상을 압도하는 기독교 문화를 세워가기를...”

성,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신실하게 견지해 나가며, 시대적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교단이 되기를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섬겨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총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요?

이번 총회를 치르면서 “중

학과 신앙의 문화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문화가 다양한 장르에서 세상의 문화를 압도해 나가며 그 우월성을 온 세상에 보여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문화를 보여 줄 수 있는 총회 매거진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려 사역을 목사님들과 함께 감당하면서 위로 받기 쉽지 않은 사모님들을 이번 총회를 통해 큰 위로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세미나를 통해서 다음세대를 이끌어 가실 영어권 목회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의견을 나누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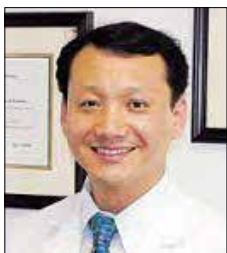
들과 방언이 주 앞에 나아와 다함께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리며 예배드리는 것인데 그 놀라운 일을 실제로 보여 주고,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뉴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모든 민족들이 하나 되어서 각기 다른 방언일지라도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서로 소통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진정한 예배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지켜 나가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미래인 다음세대 사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세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다면 이제 곧 다가올 가까운 미래의 여러 가지로 교계의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근래에 많

은 교회학교들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 오는데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의 사역이 보다 열매 맺는 사역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사역이 되길 바라는 목회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상 기자)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탈장

외과적 시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수술 후 일주일씩 병원에 입원해야 하던 경우도 요즘은 수술 후 24시간 내에 퇴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수술 후 합병증도 감소해 그 결과 수술

후에 직장이나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간도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50대 중반의 임 모 씨는 약 한달 전부

터 오른쪽 아랫배가 불편함을 느꼈다. 통증은 오랫동안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좀 더 심하게 느껴졌고, 오래 걸을 때는 불편함이 더욱 심했다. 잠을 자거나 누워있을 때는 불편함이나 통증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또 기침을 할 때 아랫배가 나오는 느낌도 받았다. 처음에는 아랫배가 묵직한 느낌이 들고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만 줄 알고 소화제도 먹어 보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병원을 찾아왔다.

임씨는 과거에 별다른 질병이 없었고 수술을 받은 적도 없었다. 현재 종합 비타민 이외에는 복용하는 약이 없고 담배는 하루에 반 갑, 술은 자주 마시는 편이었다. 복부 검진 상 환자가 일어선다면 아랫배에 덩어리가

만져졌지만 높게 되면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았다. 또 아랫배에 힘을 주면 사타구니에서 덩어리가 만져졌다. 임 씨는 서혜부 탈장으로 진단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다.

탈장이란 복강 내 장기가 복부 벽에 생긴 틈새를 통해 빠져 나오는 질병을 말한다. 대퇴부, 횡경막, 배꼽 등에도 생기지만

넓적다리나 하복부 사이에 발생하는 서혜부(사타구니) 탈장이 복부에 생기는 탈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혜부 탈장은 주로 남자에서 발생하는데(남녀 발생 비율은 9:1) 남자의 약

25퍼센트가 일생에 한 번쯤 서혜부 탈장을 경험할 정도로 흔하다. 미국에서는 연간 70만 명이 서혜부 탈장 수술을 받는다.

소아에게 생기는 탈장은 선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성인 탈장은 비만이나 만성변비, 만성기침 등으로 배속의 압력이 높아지거나 복부의 근육

면 복부에 물이 차서 배가 항상 불러있는 경우는 복강 내 압력이 올라가면서 탈장이 쉽게 생길 수 있다.

탈장은 손으로 밀어 넣거나 누르면 들어가기 때문에 통증

이 없는 경우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탈장을 치료하지 않게 되면 복벽의 구멍이 더 커지게 되고, 드물게는 장의 일부가 구멍에 끼어 장이 썩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탈장의 원인은 생활습관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탈장을 유발하는 만성변비가 있거나 만성 기침을 하는 경우 원인을 치료하고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행위나 흡연 습관을 피하고 체중 조절에 노력해야 한다.

▲문의:213-383-9388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아랫배가 묵직한 통증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뉴욕 라이트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

KPCB New York Light Pastoral Mentoring Seminar

베이사이드장로교회(베장)는 1991년도에 뉴욕 베이사이드 지역에 2 가정으로 개척되어 32주년을 맞고 있는 교회입니다. 베장은 제자훈련을 통하여 말씀에 기초로 세워진 교회로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베장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32년 동안 교회에서 끊이지 않고 제자훈련을 해오고 있으며 그 열매로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 교회를 이루어왔고 코로나19 기간에도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제자훈련을 실시하여 도미니카의 한 대학의 정식과목으로 채택되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니카에서도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 비영리 제자훈련 단체 (Siete Ovejas y Un Pastor) 를 설립하고 중남미를 향하여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베장은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전도 프로그램이 발달하여 한국에서의 이민이 거의 전무한 이 시대에도 아이들과 그들의 젊은 부모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젊은 교회입니다. 이번에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를 개최하는 목적은 그동안 베장이 걸어왔던 길을 나눔으로 위기의 시기에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베장은 그동안 매해 교회 결산의 남은 절반을 어려운 교회를 돕는데 활용해 왔으나 이번 해부터는 보다 폭넓게 자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게 되어 제 1회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내용

- 1. 개척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단계 설명
2.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양육프로그램
3.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정착프로그램
4.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시대에 맞는 전도프로그램
5. 목회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목회 철학
6. 목사와 장로와의 관계
7. 목회자 위기 관리
8. 짧은 뉴욕 Tour (강의 진행에 따라 시간 변경 가능)



주강사 : 이종식 목사
강사 소개 :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Philadelphia, PA. (M.Div.)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Jackson, MS. (D.Min. 과정 수료)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Honorary Ph.D.
도미니카 공화국 UNEV 대학교수
미주합동 신학교 총장 역임
CRTS Theological Seminary 분교장 역임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 총회장 역임
칼넷(CAL-NET) 미주대표
도미니카 공화국 제자훈련 단체 (Siete Ovejas y Un Pastor)총재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담임목사 1991~Present



대한예수교장로회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목양훈련원

일시 | 2023년 9월 11일(월)-14일(목)

장소 | 베이사이드장로교회 45-62 211 ST. Bayside, NY. 11361

예약문의 | 718 229 0858, 646 361 8992 정도영 행정목사

E-MAIL | nymentoringseminar@gmail.com

대상 |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로서 55세 이하 되는 분 (선착순 50명)

미국내 타주에서 오시는 목회자의 경우 등록비 숙박비 및 항공료(economy class 기준) 전액을 제공합니다 (중명서 제출과 세미나 전 강의 참석 필수). 단 세미나 후의 모든 개인 일정은 교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뉴욕/뉴저지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에게는 등록비, 식사비 무료이며 세미나 전 강의 참석을 약속하는 분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뉴저지에서 오시는 목회자들은 모든 세미나 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필요시 숙박을 제공합니다.

모든 비행기 예약은 9월 11일 월요일 뉴욕시간 오후 2시 전에 뉴욕 케네디 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잡아주셔야 교통편의가 제공되며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일정은 9월 14일 목요일 오후 6시 이후에 출발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